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1031-200000178750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노년기 직업교육 참여동기가 자기효능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019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전공

윤 선 재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노년기 직업교육 참여동기가 자기효능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주 동 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전공

윤 선 재

윤선재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2월 22일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주 심 교 육 학 박 사 강 승 희 (인)

위 원 철 학 박 사 주 동 범 (인)

위 원 교 육 학 박 사 천 성 문 (인)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5

3. 용어의 정의 ····· 6

가. 노년기 직업교육 참여동기 ····· 6

나. 자기효능감 ····· 6

다. 생활만족도 ····· 6

4. 연구의 제한점 ····· 7

Ⅱ. 이론적 배경 ····· 8

1. 노년기 직업교육 참여동기 ····· 8

가. 일과 삶 ····· 8

나. 노년기의 일과 삶 ····· 11

다. 노년기 직업교육 ····· 14

라. 노년기 직업교육 참여동기 ····· 17

2. 자기효능감 ····· 19

가. 자기효능감의 개념 ····· 19

나. 자기효능감의 구축과정 ····· 22

다.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소 ····· 23

라. 노년기 자기효능감의 특성 ····· 25

3. 생활만족도 ····· 27

가. 생활만족도의 개념 ····· 27

나. 노년기 생활만족도 개념에 따른 특성 ····· 30

다. 노년기 생활만족도의 구성····· 33
4. 선행연구····· 36
가. 노년기 직업교육 참여동기·····36
나. 노년기 직업교육 참여동기와 자기효능감·····39
다. 노년기 직업교육 참여동기와 생활만족도·····43
라. 직업교육 참여동기와 자기효능감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45

Ⅲ. 연구방법····· 49
1. 연구대상····· 49
2. 측정도구····· 51
가. 노년기 직업교육 참여동기····· 51
나. 자기효능감····· 52
다. 생활만족도····· 53
3. 자료 수집 방법····· 54
4. 자료 처리 방법····· 54

Ⅳ. 연구결과 ·····55
1. 변인의 기술통계 ·····55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검증 ····· 56
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교육 참여동기의 차이 ····· 56
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 65
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 74
3. 직업교육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 77
4. 직업교육 참여동기가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80

가. 직업교육 참여동기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80
나. 직업교육 참여동기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81

Ⅴ. 논의 및 결론 ····· 82
1. 논의 ····· 82
2. 결론 및 제언 ····· 90
가. 결론 ····· 90
나. 제언 ····· 92

Ⅵ. 참고문헌 ····· 93

Ⅶ. 부록 ····· 108

표목차

<표 II-1>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6)

<표 II-1>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6) ····· 13
<표 II-2> 성인학습자의 학습 참여동기 ····· 18
<표 III-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N=338) ····· 50
<표 III-2> 직업교육 참여동기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52
<표 III-3>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 53
<표 III-4> 생활만족도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53
<표 IV-1> 변인의 기술통계 ····· 55
<표 IV-2> 성별에 따른 직업교육 참여동기의 차이(N=388) ····· 57
<표 IV-3> 연령에 따른 직업교육 참여동기의 차이(N=338) ····· 58
<표 IV-4> 동거형태에 따른 직업교육 참여동기의 차이(N=338) ····· 59
<표 IV-5> 최종학력에 따른 직업교육 참여동기의 차이(N=338) ····· 61
<표 IV-6> 경제상태에 따른 직업교육 참여동기의 차이(N=338) ····· 62
<표 IV-7> 과거 직업군에 따른 직업교육 참여동기의 차이(N=338) ···· 64
<표 IV-8>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N=388) ····· 65
<표 IV-9> 연령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N=338) ····· 66
<표 IV-10> 동거형태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N=338) ·····68
<표 IV-11> 최종학력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N=338) ····· 69
<표 IV-12> 경제상태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N=338) ····· 71
<표 IV-13> 과거 직업군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N=338) ····· 72
<표 IV-14>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N=388) ····· 74
<표 IV-15>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N=338) ····· 75
<표 IV-16> 동거형태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N=338) ····· 75

<표 Ⅳ-17> 최종학력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N=338) ····· 76
<표 Ⅳ-18> 경제상태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N=338) ····· 76
<표 Ⅳ-19> 과거 직업군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N=338) ····· 77
<표 Ⅳ-20>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 79
<표 Ⅳ-21> 직업교육 참여동기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80
<표 Ⅳ-22> 직업교육 참여동기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81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The Influence of Vocational Education Participational Motivation for Elderly on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Sun Jae Yo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Our country already entered into the aged society with 14.2% aged persons, over than 65 years old, and will be predicted to enter into the super-aged society at the 11th in the world. The increase of the aged persons will generate Poverty, Disease, Alienation, Abuse, Gloom, Elder suicide, and it will be risks of society in the nation wide.

Japan and EU countries entered into the super-aged society in advance are resolving the concerns and risks of the aged society through vocational education and the various training courses for the aged persons. But, our country actually has not enough those kinds of training courses for the aged-persons yet.

Making the aged persons participate in the current society and taking interest in the long life educa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re the strong requirements in this generation of our country.

Thus, I have surveyed the participation motivation of the aged persons participated in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with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based on participation motivation.

According to my research results on the motivation of the aged persons participated in the vocational education, the intention of activity and the intention of study got higher score than the intention of objective, it seems the intention of study and self- efficacy have positive relationship and the intention of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have positive relationship.

Therefore, we should consider the intention of activity and study simultaneously with employment and foundation when planning the education program for the aged persons.

Even though we can't manage the increase of the elderly, but we can change the quality of the elderly's life depends on how to manage the content of the aging society. We have to make every effort to make the elderly considered as the burden of the society be productive and creative for the society, make the elderly reliant and weak be independent and healthy.

Key word: Elderly, Vocational Education, Participational Motivation, Self-Efficacy, Life Satisfaction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18년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4.2%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인구주택총조사, 2018), 2026년에는 세계에서 11번째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7). 이와 관련하여 유엔기금은 오늘날 노인인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의 경제적 빈곤, 질병, 소외, 노인학대, 우울, 주택 문제, 노인 자살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는 국가사회 전체의 위험요소로 작동한다.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관련한 부서의 지출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거시경제 차원이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범국가적인 경제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용노동부, 2014).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급격한 인구 고령화의 파도를 맞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 속도가 매우 빨라서 '압축적 고령화'라고 명명할 만하다(한정란, 2005). 게다가 이러한 압축적 고령화로 인하여 일본, 이탈리아 등 대표적인 고령국을 모두 제치고 전 세계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최고령국(37.3%)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영구, 허재완, 2015).

노인인구 수의 폭발적 증가나 증가속도에 대한 양적인 변화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완화할 수 없지만, 고령화의 내용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상당부문 긍정적인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양찬미, 염주희, 이윤경, 황남희, 2013). 이에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가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다(최병돈, 2013).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고령화의 부작용을 경험하면서, 이의 극복을 위해, 일자리정책 외 사회적 참여 기회의 확대라는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를 제시하였다(남경희, 장유미, 2013). 하지만 이런 대응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노인들이 의미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다른 세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등의 것이었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는 노인들을 위한 생애학습적인 차원의 대안을 강구하였고, 그것이 노인교육센터를 통한 각종 노인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천되고 있다(기영화, 2004).

또한 서구유럽에서는 고령자들을 위한 성인교육과 직업교육 등을 마련하고 있다. 유로링크 에이지(Eurolink Age)는 네덜란드에 본부를 두고, 고령자들의 교육권을 회복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조직으로 고령자들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과 정보공유에 주력하고 있다(한준상, 2013). 동시에 유럽 각 국가들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함께 고령자 직업교육정보와 직무현장에서의 고령자 관리기법을 교환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아예 유러워크 에이지(Eurowork Age)도 조직했는데, 이 모두가 노인들의 직업능력개발과 평생학습능력을 위한 것이다(한준상, 2013).

앞에서 언급한 일본이나 유럽과는 달리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취업 및 재취업 등 과 같은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이나 협조는 미흡하다(심재신, 2014). 우리나라의 노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대부분은 교양오락에 치우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노년기 인구를 대상으로

한 직업 관련 연구는 다양한 개인별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져 왔다(전승례, 2008). 또한 직업교육 자체가 초·중등학교에서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일부 학자들에 의해 직업교육의 필요성이나 활성화방안에 관해서만 진행되었을 뿐(기영화, 2004, 2005; 김동배, 안인경, 이윤화, 2004; 배경석, 2004), 적극적 차원의 교육적 관점에서의 노인직업교육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류윤석, 2005).

고령인력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고용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최숙희, 2010), 노년기 직업교육 연구에 있어 참여동기는 직업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요소이다(김미란, 2013). 평생학습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도 참여동기는 평생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서 다루어져 왔으나, 노년기 인구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에서의 참여동기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며, 그 또한 질적 조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년기 직업교육 참여동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언(기영화, 2005)과 함께, 노년기 인구의 학습자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김길자, 2004)도 높아졌다. 이에 노년기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참여동기를 양적으로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노년기 인구에 있어 자아실현과 삶의 만족도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기효능감이 제시되고 있다(김효순, 하춘광, 2009). 최근 노인대상 연구에서 부상되고 있는 정신건강 요인 중 하나인 자기효능감은 바라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과정을 성공적으로 조작하고 수행해 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노인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해주고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권중돈, 손의성, 2010), 개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요인이다.

노년기 평생교육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에 있어 성별, 소득, 학력, 연령에 따라 격차가 있음을 확인한 연구(신미애, 2015)가 있는 반면, 노년기 대상 컴퓨터 학습에 있어, 경제력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성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연구(김민지, 2017)도 있다. 이에 노년기 직업교육에서 일반적 특성과 참여동기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노년기 직업교육에 있어 자기효능감과 더불어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생활만족도이다. 생활만족도란 삶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고(김원배, 2009), 노년기를 효율적이며 유익하게 보내는 것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는 효과도 동반하므로(박석돈, 1998),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년기 교육이 요구된다(김용숙, 2013). 개인의 생활만족도를 합치면 국가 사회 전체의 만족도로 구체화되므로, 이에 개인 자신은 물론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생활만족도를 높일 당위성이 요구된다.

노년기 학습자의 성별, 연령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박기권, 2004)와 함께 노년기 직업교육과 관련한 생활만족도 연구에서 생활에 미치는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한 반면에, 가정생활과 신체변화 정서변화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천후섬, 2014)도 있다. 따라서 노년기 직업교육에서 일반적 특성과 참여동기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기 직업교육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및 생활만족도가 노년기 일반적 특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노년기 직업교육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고, 노년기 직업교육 참여동기가 자기효능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개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노년기 직업교육 참여동기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노년기 직업교육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노년기 직업교육 참여동기는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노년기 직업교육 참여동기는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3. 용어의 정의

가. 노년기 직업교육 참여동기

(1) 노년기

본 연구에서의 노년기는 60대 이후의 인구를 의미한다.

(2) 참여동기

본 연구에서의 참여동기는 Houle(1961)의 동기이론을 바탕으로 차윤지(2011)가 개발한 참여동기 측정도구의 활동지향성, 목적지향성, 학습지향성 참여동기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나.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차정은(1996)이 개발한 척도를 김아영(1997)이 수정, 보완한 것으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다. 생활만족도

본 연구에서의 생활만족도란 Neugarten(1961)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한국노인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최성재(1986)의 것으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4. 연구의 제한점

연구조사의 대상이 부산에 거주하는 노년기 직업교육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비교적 고학력의 교육정보 접근성이 높은 노년기의 참여가 다수여서 저학력 노년기인구 및 교육정보에서 소외된 노년기인구에 대한 조사는 부족하다. 그리고 참여 기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기간에 따른 결과는 도출되지 않아 그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Ⅱ. 이론적 배경

1. 노년기 직업교육

가. 일과 삶

일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을 이루거나 적절한 대가를 받기 위하여 어떤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활동이다(국립국어원, 2017). 무엇을 이룬다는 것은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가치 추구를 말하는 것이고, 적절한 대가를 받는 다는 것은 수단적이고 외재적인 가치 추구를 말함이다. 모든 대상은 목적으로서 추구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의 수단으로서 추구될 수도 있으므로,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의 구분은, 대상을 보는 상황에 따른 구분일 뿐이지 대상에 따른 절대적 구분이 아니다(Dewey, 1916).

인류학적으로는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뭉뚱그려 일이라고 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일은 삶의 영위라는 차원에서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일반 동물과 구별 짓게 하는 인간 특유의 것이다(광주평생교육진흥원, 2018). 그래서 일의 수준과 내용은 인간 활동의 역사적 발전 과정이나 생산력의 발전 수준을 나타낸다. 또한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세계와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매개체이며, 구체적인 세계를 통하여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일, 특히 노동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의 사회관계, 즉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고리 역할을 수행한다(한국학중앙

연구원, 2017).

활동이론에 의하면 노인은 스스로 사회에서 완전히 은퇴할 때까지 사회적 관계를 가지며 적당한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삶의 만족도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인위적인 방식으로 사회에서 기능적으로 분리시키면 무력감과 소외감으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노인의 남아 있는 잔존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 활동을 증가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노인의 성공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구자순, 1988), 더불어 노인들이 긍정적자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며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김소향, 이신숙, 2009).

역할이론에서는, 노인들은 심신의 노화에 의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상실됨으로 인한 결과라고 하면서, 무위에 따른 노년기의 삶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김기태, 박봉길, 2002), 노인에게 역할부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민진암, 2013).

또한 생태학적 이론에서는, 노인에게도 잠재적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인 스스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주어진다면, 노인은 충분히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창조적으로 삶에 대처할 수 있으므로, 삶의 만족도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최순남,2002).

다른 한편으로 분리이론에서는 노인이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개인이나 사회의 입장에서 바람직하고 또 양자 모두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송진영, 2011). 사회의 입장에서 지식과 기술을 노인에게 재교육하여 생산수단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보다는 유능한 젊은이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인에게는 안식과 휴식의 기회를 주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준다는 입장이다(윤경아, 2002). 그러나 노년기에 있어 경제적 안정과

보장은 노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노인의 지위와 자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까지 해 줌으로 노년기의 삶을 영위하고 삶의 만족도 수준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장인협, 최성재, 2010)는 견해도 있다.

일을 논함에 있어 그 바탕 또는 전제가 되는 것은 항상 삶이다. 삶의 사전적 의미는 '태어나서 죽기에 이르는 동안 사는 일, 또는 살아 존재하는 현상'이며, 유기체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철학적 사유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것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태어나서 죽기에 이르는 동안 하나의 개체가 행하거나 겪는 의미 있는 일들의 전체인 것이다. 삶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 않지만, 산다는 것은 일한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일들을 분류하고 지정하면서 삶을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삶으로부터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심리적인 건강에 매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김경미, 류승아, 최인철; 2011), 어떻게 사람들이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이에 대한 하나의 접근은 사람들이 삶에서 확인해 나가는 의미들이 어디서 오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기르거나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또는 일을 잘한다고 느끼면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이 삶의 나머지 부분에도 스며들 것이다. 일은 이렇듯 삶의 의미'의 원천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석만, 2008).

일과 삶의 의미에 대한 관심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중년의 시기를 살아가게 되면서 증가하고 있다(고은숙, 양의주, 조은숙, 하정, 2016). 실직을 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한 전직 기업체 중역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들이 개인적 자유보다는 일을 통한 의미 발견에 더 가치를 둔다는 결과가 나왔다(이성엽, 주충일, 2015). 일의 영역은 전반적인 삶의 의미와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 인간은 여러 사건으로부터 의미를 끌어내고자 하는 주요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제 사람들은 일에서 의미를 추구하고 또 발견하고자 한다(김수진, 2013).

최근 들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흐름인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캠페인이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었다. 워라밸은 197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미국에서는 1986년부터 사용됐다(강혜진, 이재완, 2018). 워라밸은 일과 그 외의 영역, 특히 가정생활에 에너지와 시간을 적절히 분배해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여 만족스러운 상태를 가지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일과 일상, 일과 삶의 조화로움이 요구된다. 이 캠페인은 일에 쫓기는 청장년들에게나 일에서 쫓겨난 노년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가치라 할 것이다. 일과 삶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공통전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노년기에게 일이 없는 삶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에 대한 연구도 종국에는 삶과 연결되어 있고, 삶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일은 떼어놓을 수 없다. 일과 삶은 분리할 수 없다. 직업교육을 연구함에 있어 차라리 삶을 바탕으로 일에 대해 연구하거나, 일을 배경에 두고 삶을 연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

나. 노년기의 일과 삶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있어서 일은 은퇴 전의 가족부양이나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이라는 개념보다는 소일거리, 자원봉사, 사회적 활동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며 휴식과 놀이, 여가 활동을 제외한 모든 생산 활동을 말한다(송인주, 2010). 은퇴한 노인들에게 일의 의미는 자아의 완성이나 유지와 관련이 깊다. 노인들은 일을 통하여 자신의 부족한 성취, 가치관

의 통합과 같은 욕구를 실현하고자 하며,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과업을 가지고 있다(송인주, 2010). 덧붙여 노년기 일의 의미란 노인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주관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인지적 평가다(장형석, 2000).

노인인력운영센터에서 밝히고 있는 노년기 일과 취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노후 생활비 마련은 심각한 현실 문제로 노인의 경제 자립 욕구가 확대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4). 둘째, 노인 개인의 경제 안정은 물론, 의료비 등 사회비용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셋째, 노인인력활용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노인인력을 유용한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게 된다. 넷째, 노인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나아가 사회를 위한 봉사와 연대감을 고취하여 역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다섯째, 일자리 참여를 통한 규칙적인 생활로 정신적, 신체적 건강 유지에 크게 도움이 되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저마다 자신의 일에 목적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노년기에 있어서도 일은 목적의식과 사명감을 부여한다(이주일, 2011; 장형석, 2000). 일은 노년기에게 은퇴 이후 자유의지에 의한 삶에 필요한 통제의 기회를 주고, 자신의 경험이나 기술을 유용하게 하는 기술사용의 기회를 제공한다(이재영, 2010). 무엇보다 경제적 소득을 획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노인들에게도 필수불가결한 요구이기 때문에, 일을 통해 소득창출의 기회를 얻으려는 노인들이 많다(곽영순, 2011; 하애란, 2010).

활동이론에 따르면 노년기에 일이나 사회적 활동의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만족감이나 생활만족감이 높아지며, 젊었을 때처럼 사회적 관계나 지위, 역할을 유지하려는 등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 노년기에도 다양한 사회활동이나 생산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이재영,2010).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촌노인의 일과 신체적,

심리적 건강이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윤순덕, 한경혜, 2004).

노인문제에 관련된 연구들(권중돈, 2010; 윤선아, 2011; 정영자, 2011; 최성재, 2004)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생물학적·심리적·경제적·사회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고통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존재인 것처럼 보인다(표 II-1 참고). 특히. 자살 생각과 삶의 의미 사이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김현지, 권정혜, 2012)도 보고되었고, 노인의 삶의 의미 수준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 수준도 낮다는 연구(안영미, 2002)도 보고되었다.

<표 II-1>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6)

일반 특성 (1)	일반 특성 (2)	자살 생각률	자살 시도율	자살이유					
				건강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사망 (가족, 지인)	관계 단절	가족의 건강
성별	남	10.0	10.1	23.6	**42.0**	16.7	4.2	9.6	3.7
	여	11.6	13.9	24.9	**39.4**	11.3	6.2	12.7	5.6
연령별	65~69	11.0	11.9	23.4	**39.6**	15.5	3.6	14	3.8
	70~74	11.7	15.2	23.0	**41.4**	11.6	6.1	13.4	4.5
	75~79	11.4	11.9	24.5	**43.9**	11.9	5.9	10.6	2.6
	80~84	9.3	13.1	29.7	**35.7**	14.8	7.1	6.6	6.1
	85세 이상	9.7	3.7	26.3	**35.5**	12.8	6.9	1.8	16.8
배우자 유무	유	8.9	11.9	25.2	**40.0**	11.3	3.6	13.9	5.9
	무	14.3	13.0	23.6	**40.8**	15.4	7.2	9.1	3.8

취업 상태	취업 중	8.8	9.3	18.7	**49.5**	11.9	2.9	13.2	3.7
	미 취업	11.8	13.4	26.1	**37.6**	13.8	6.2	11	5.2
전체	소계	10.9	12.5	24.4	**40.4**	13.3	5.4	11.5	4.8

그러나 다행히도 노년기가 되어서도 불행하지 않다는 연구결과와 사례들이 많으며, 노년이 되어서도 행복한 이유에 대하여 노화를 기꺼이 수용하며 노년기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한혜경, 2012).

2013년 '제 20차 세계 노년학·노인의학 대회' 개막과 함께 개최된 제 8회 서울 노년학 국제학술심포지움에서, UN노인연구소 소장인 Joseph Troisi는 기조강연에서 고령화가 세상을 바꾸고, 노인은 자원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노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사회의 본원적인 구성원으로 보아야하며, 노인의 권리는 존엄하고 독립적이며 또한 사회에 의무를 가진다.'는 새로운 정의를 내렸다(Ohmynews, 2013). 이는 노인에 대한 개념이 고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재정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남순현, 2016). 노인들 스스로, 법률이 정한 정년, 또는 사회가 만든 정년을 맞으면서 뒷방 늙은이로 쓸쓸히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회로 재진입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다. 노년기 직업교육

노년교육학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치료적 성격과 예방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즉, 고령화에 관련된 문제를 교육적으로 진단·해결·치료하고자 하

는 동시에 노인들과 그들을 둘러싼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고령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재 노인 뿐 아니라 잠재적 노인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연령의 학습자들까지 그 대상으로 한다(한정란, 2015). 김종서(1982)는 노인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성장욕구를 충족하고 새로운 생활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지적 능력을 개발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노년기 직업교육을 연구함에 있어 우선 교육과 훈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은 흔히 말하는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과 뚜렷이 구분하기 어려운데, 훈련은 반복된 경험을 통하여 특정한 일에 숙달되게 하는 학습이고, 교육은 훈련의 개념이 지니고 있는 것 이외에 학습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고등정신기능을 개발하는 것 까지를 포함한다(이무근, 1999). 배경석(2004)은 직업훈련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직업교육은 직업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학교 체제 내에서 실시하는 조직화된 일련의 프로그램이라고 하였다.

분명한 것은 직업훈련이 고용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초점이 주어져 있다면, 직업교육은 대체로 아주 광범위하며, 직업적 목적뿐 아니라 정책적, 도덕적, 지적 목적을 망라한다(고혜원, 정지선, 주인중, 홍선이, 2000).

이러한 교육의 개념을 노년기직업교육에 적용한다면, 노년기직업교육이란 노인의 직업에 관련된 교육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해결하는 생존권 보장 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으로는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노년기 직업교육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의 구체화된 형태 중 하나로 그 대상이나 적용에 있어 특수성을 가진다. 노년기의 학습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노년기에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인생 후반기에 이르러 학습 수행에서는 미미한 쇠퇴가 일어나지만 보상적인 책략,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하여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능에 있어, 연령은 16~25%의 설명력만을 가지며, 나머지는 연령 외 동시집단, 교육수준, 생활경험, 불안수준, 동기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보아지므로, 노화에 따라 일률적으로 쇠퇴한다고 말하기 힘들다(한정란, 2005).

타케오 와타나베 미국 브라운대 인식언어 및 심리학과 교수팀은 학습 능력에서는 노인과 젊은이 사이에 별 차이가 없지만 꼭 필요한 정보만 선별하는 능력에서는 노인이 젊은이에 비해 확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부를 어렵게 느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실험 초기보다 후기에 노인의 인지 능력이 훨씬 향상되었는데, 반복해서 훈련할수록 노인들의 시각 판별력이 젊은이들만큼 좋아지는 것을 증명해냈다. 와타나베 교수는 “나이가 들더라도 훈련과 학습을 통해 분별력을 향상시키고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이우상, 2014).

노년기 학습은 마치 유아학습이 보통의 학교 교육환경과 다른 것처럼 노년기 대상에 있어서도 종래의 학습 환경에 비해 전혀 다른 교수학습방식이나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교육부, 1999). 동시에 노년기 학습자 스스로도 그런 새로운 교육환경이나 학습조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노년기직업교육을 단순히 취, 창업의 차원을 넘어선 재사회화 과정으로 구성한다면 노년기 직업교육은 평생학습의 결정체라고도 할 수 있다.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된 유네스코 Faure(1972) 보고서는 평생교육의 본질과 목표는 ‘존재를 위한 평생학습’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김성길. 2004). 평생학습의 본질은 학습을 학점 인정이나 취업,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하나의 소

유물이 아니라 타자와의 의미 있는 관계 맺음을 통하여 온전한 인간이 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유네스코 Delors(1996) 보고서는 평생학습이란 각자에게 숨겨진 보물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로 Dewey는『학습심리학』에서 노동은 여가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교육은 노동을 위한 교육, 여가를 위한 교육으로 나누어지고, 노동은 여가를 부여하고, 여가는 진정한 교육으로 이어지는 순환 모델을 제시했다. 더불어 직업을 통한 교육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학습에 도움이 되는 요인들을 자체 안에 가지고 있어, 본능과 습관을 작용하게 하는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갈파했다(Hutchins, 1952).

덧붙이자면, 지금까지의 노인교육의 정의들에서 한 가지 간과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노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인생의 지혜와 풍부한 경험이라는 자원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교육은 그런 자원을 활용하고 증폭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은 없다. 인생의 시간은 크든 작든 혹은 많든 적든 간에 어떤 의미와 교훈, 경험을 남기고 지나간다(남순현, 2016). 노년기 직업교육은 노인 자신에게는 삶을 완성하는 새로운 기반이 될 것이고, 국가 사회의 인적자원개발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 노년기 직업교육 참여동기

Knowles(1975)는 인간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개인적 및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자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노인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학습자, 자아발견, 친구, 시민, 가족구성원, 근로자, 여가이용자로서, 이 역할들은 노인들의 교육

에 대한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년기 인구가 노년기 학습자로서 평생교육에 참여하게 함에 있어, 이들의 요구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그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허정무, 2000).

대부분의 성인학습자의 참여동기 유형에 관한 연구는 Houle(1961)의 세 가지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노년기를 포함한 성인의 학습 참여동기는 시간적 공간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며,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도 변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느 특정 유형만으로 나타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다양성이나 변화가능성의 진행과정과 변수들을 포착하는 것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는 연구자들에 따라서 <표 II-2>와 같이 몇 개의 구조화된 유형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표 II-2> 성인학습자의 학습 참여동기 유형

Houle	Bosher	Burgess	Morstian & Smart	Sheffield
목표지향	-직업적 향상 -가족 연대감	-개인적 목표성취동기 -사회적 목표성취동기	-직업적 향상 -외부적 기대	-개인적 목표지향 -사회적 목표지향
활동지향	-상호이해 증진 -사회적 관심 -사회적 자극	-활동 참여동기 -현상 도피동기	-도피/자극 -사회적 관계 -사회적 복지	-대외 활동 지향 -대외욕구충족 활동지향
학습지향	-인지적 흥미 -교육적 준비	-지적 성취동기 -공식적 자격획득동기 -종교적 목표성취동기	-인지적 흥미	-학습지향

출처: 이부일(2010)의 연구를 본 연구자가 재구성함.

성인학습자의 참여동기 구성요인은 인구의 증가, 기술변동, 직업의 구조 변화, 여가증대 등의 사회적 요인 이외에 학습자의 내면적 특성과 개인 배경인 연령, 거주 지역, 학력수준, 경제 수준 등 여러가지 요인이 결합하여 학습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강훈, 구주형, 한상훈, 2016).

현재 노년기 직업교육 참여자들의 직업교육 참여동기에 대한 양적 조사가 미비한 실정이라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참여동기를 이론적 배경으로 삼아야 하는 상황이다. 동기에 대한 개념이나 세부 요소들에 대한 연구자들의 접근이 다양하여, 연구자별로 동일 항목, 또는 서로 다른 항목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부 항복으로는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배움이 좋아서, 자격증 및 수료증 취득, 교양 쌓기, 학점 및 졸업장 취득, 직업적 도움, 전직이나 이직 등이 참여 동기 요인 분석으로 사용되고 있다(이부일, 2000).

2. 자기효능감

가. 자기효능감의 개념

자기 효능감은 실제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 (Bandura, 1977).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과제를 끝마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가리킨다(박상희, 2014). 어떤 일 또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과연 내가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성공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어느 정도까지 그

일이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신념을 결정하고, 선택한 뒤, 행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자기확신이라고 할 수 있다. 행위가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것에 모두 자기효능감이 작동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효능감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설명하려면, 그와 관련된 이론들로부터 접근해야 한다. 자기효능감의 이론적 배경에는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자기개념이론(self-concept theory), 귀인 이론(attribution theory),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이 있다.

사회인지이론은 환경과 개인의 특성, 그리고 행동이 상호작용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학습에 있어 기존의 행동주의가 강화와 조건화만을 강조하고, 인지적 과정의 영향과 가능성을 배제한 것과 달리, 사회적이고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하고자 고안되었다.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더라도 관찰하고, 그것을 모방하면서 학습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자기효능감이 학습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자기효능감의 개념은 사회인지이론의 주요 골자이다.

사회학습이론이란, 하나의 사회 집단 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모방하고, 모델링함으로써 활동과 기술들을 습득한다는 것이다. 개인은 집단 내의 상호 작용에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감정적, 실제적 기술을 발달시키게 된다. 자기효능감이란 이 과정에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과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어떤 기술들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알게 되고, 그런 기술들을 쌓아가게 된다.

자기 개념 이론(self-concept theory)은 개인이 외적인 정보원들로부터 얻은 단서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알아가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해석하는 가를 설명하려 한다. 그리고 이런 자기 이해와 분석이 어

떻게 만들어지고, 인생을 통 털어 어떻게 활용되는 지도 설명하고 있다. 이때 성공이나 실패는 개인 자신 및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는 방식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자기개념은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이며, 이 학습이 쌓이면 자기 이해의 체계가 만들어지므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주변과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변화되어 갈 수 있다. 이 자기개념 안에 자기효능감은 자리하면서 변화무쌍하게 활동한다고 볼 수 있다.

귀인 이론은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찾는 방식에 대한 이론이다. 구체화된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개인의 감정이나 향후 반응, 또 행위 동기 등도 달라질 수 있다.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에 대해 그 원인을 추론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관찰된 행동의 동기를 추론하려는 시도는 인간이 자기 타인 또는 주위 환경을 지각하는 기본 과정의 하나로서, 이를 통해 결과나 책임에 대한 원인적 이해에 이르게 된다(백기복, 2002). 귀인의 양식이 인간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할 것인데, 분명한 것은 귀인에 따라 자기효능감 또한 고정되거나, 높거나 낮게 변화한다는 것이다.

계획된 행동 이론이란, 개인의 행동은 개인의 의도와 연관되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이때 개인의 의도에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행동으로 구현된다. 첫째는 행동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가늠한다. 둘째,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이 그 행동을 지지하여 줄 것인지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그 행동을 스스로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이때 자기효능감은 통제 판단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처럼 자기효능감이란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에 작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의사결정이 단호하고 간결해지며 수행의 정도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높아지며, 수행의 과정 또한 집중력과 긍정적 심리가 더욱 발휘될 수 있다.

나. 자기효능감 구축 과정

자기효능감이란 한 개인이 목표 수행을 위해 인지적·사회적·정서적·행동적 기술을 조직하고 조정하는 능력이다. 이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하위기술들을 통합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동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행위에 있어, 인지·동기·정서·선택의 네 가지 과정을 통해 나타나며, 서로 독립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상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작용한다((Bandura, 1993).

인지적 과정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작용된다. 사물이나 행위 또는 주변 환경을 기존의 지식과 경험에 관련하여 지각하고, 그것을 이해하여 해석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이 과정이 추후 동기화 되고 선택되어져 행위로 이어지면 자기효능감이 발현되는 것이다.

동기적 과정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지속하는 데에 작용한다. 브룸(1964)에 의하면 유인가의 유무나 정도, 행함에 있어서의 성과의 유무나 정도, 결과에 대한 보상의 유무나 정도가 동기가 발생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자기효능감 발현에서의 동기적 과정도 이와 유사한 매카니즘을 가지고 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브룸은 동기의 과정만을 설명하는 것이고, 자기효능감의 동기 과정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과정들과 연동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정서적 과정은 말 그대로 사물, 사건, 환경 등 모든 것들에 대한 감정과 기분 상태의 변화를 말한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 정서적 과정의 양태는 다르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정서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은 인지, 동기, 선택의 과정을 변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직

접 혹은 간접적으로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있다.

선택의 과정은 앞선 과정들의 결과로 그 끄트머리에서 발휘된다고 볼 수 있다. 다소 이해 불가능한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에 이르기까지는 인지와 동기와 정서적 과정들이 반드시 선행되고 상호 반응했다는 것이다.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과제나 환경을 선택함으로써 동기, 감정, 행동에 전체적으로 영향이 미치게 된다(박수미, 2016).

이상의 과정들이 자기효능감 구축의 과정인데, 이런 과정의 수많은 반복들로 인해서 자기효능감은 높아질 수도 있고, 또 낮아질 수도 있다. 자기효능감이 잘 훈련되어 높은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 간다(Bandura, 1993).

다.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소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귀인, 과제난이도 선호의 네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졌다.

자신감이란 개인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가치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신념의 정도인데,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자신감은 가치 부분은 배제하고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신념의 정도라고 해석되어진다. 이러한 자신감은 인지 과정을 통해 성립되고, 정서적 반응으로 표출된다(김아영, 1998).

자기조절효능감(Self-regulatory Efficacy)은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잘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효능감 기대(Bandura, 1986)이며, 목표달성을 위해 행동을 수정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잘 해낼 수 있는가 대한 신념이다(김아영, 박인영, 2001). 자기조절효능감은 인지적 과정에서 형성되지만 동기적 과정으로 표출된다. 목표에 따라 자신의 수행을 비교, 평

가해 나가면서 후속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이때 목표를 향해 잘 나가고 있다고 느껴지면 자기효능감이 증진되어 동기가 유지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하될 수도 있다(현영섭, 2005).

귀인은 학습과 관련된 연구에서 주요 연구과제로 삼는 요소이다. 학습효과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다루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비단 학습 뿐 아니라 삶 전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귀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가치롭다. 먼저 행한 행동이나 행위에 대한 결과의 원인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음으로 이어지는 행동이나 행위에 결과를 미치기 때문이다.

귀인을 분류할 때는 소재, 안정성, 통제가능성이 준거가 된다. 소재는 원인을 추적할 때, 찾거나 외부 환경으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 안정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지, 아니면 변하지 않는 것인지를 보는 것이다. 통제가능성은 개인이 그 원인을 통제할 수 있는 지, 또는 통제할 수 없는 지에 대한 것이다. 교육학자들은 귀인을 내부에서 찾으며 불안정하고 통제가능할 때 학습효과가 높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삶에 있어서도 그러할 것이다.

과제난이도 선호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선택적 과정과 큰 연관이 있다. 본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과제는 회피하지만,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정은 선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나타난다(이재일, 2001). 과제난이도 선호는 선택의 과정 뿐 아니라 동기의 과정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상호작용한다.

이 상의 네 가지 요소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기효능감 척도로 쓰이는 변인은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이다. 차정은(1997)이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을 위해 조사하여 스크리 검사를 한 결과, 귀인 요소를 통제가능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귀인을 뺀 세 가

지의 요소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했다.

라. 노년기 자기효능감의 특성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은 행동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 과제를 선택할 때 자신 있는 활동들만 수행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행동의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 효능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목표한 과업에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결과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선택한 행동을 지속시키며 결국 성공경험을 한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현재의 행동 뿐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다음 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이전보다 상향된 기준을 정하게 되고, 행동도 더욱 적극적이게 된다. 넷째, 자기효능감은 사고의 유형과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준다.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제 해결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노인들에게도 적용되는데, 노인의 일반적 특성인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경향들로 인하여 자기효능감은 점차 낮아지는 모형을 띠게 된다. 분명한 것은 노인의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개인적인 믿음이고, 과제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임광규, 2015).

모든 조건이 동일하게 주어진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과업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획득할 확률이 높으므로, 자기효능감은 인간행동의 중요한 근원이라 할 수 있다(김의철,

박영신, 2001; 김정애, 2013). 따라서 노년기에도 자기효능감은 중요한 생애 변수이며,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보완되어야 할 심리상태이다. 노년기의 불안한 심리요인과 환경요인을 극복하고 노화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라도 노인 개인의 자기효능감 향상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전진만, 2016).

또한 자기효능감은 외부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노년기에 가까워질수록 변화에 따른 영향이 커진다. 중·장년층들도 청년층들보다 조직이나 직장 내에서 환경이 변할 때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각종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점차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면서, 결국 신체적인 건강에도 부(-)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노년기에도 지속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대부분 노인은 중년기보다 더욱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인지적 노화가 급격히 진행된다(임현선, 2003). 따라서 노년기에도 자기효능감을 신장시키는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행스럽게도 노년기에도 자기효능감은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가능 하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김영숙(2003)은 시니어에어로빅이 노년기 자기효능감 성장에 유의하다는 실험연구를 발표했고, 전영수(2006)는 레크리에이션댄스프로그램 참여가 노년기의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심리적 자기효능감을 증가시켰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김정애(2013)는 노인의 생활체육이 그 자체로도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체육활동을 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이 증가되어 이것이 행복감, 심리적 안녕감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자기효능감은 노인 개인의 건강 증진 행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매개요인이라고 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본 연구(신이, 2013)에서는 정보화교육에 참여한 노인의 자기효능감이 비참여 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노인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과 판단에 대한

믿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김민지, 2017). 또한 모현규(2015)의 연구에서도 정보화교육이 노인의 자기효능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년기 자기효능감의 특성은 노인에게도 중요한 삶의 변수라는 것이며, 노년기에도 자기효능감은 지속 성장 가능한 심리적, 인지적 자원 요인이라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생활만족도

가. 생활만족도 개념

만족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흡족함,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함'을 뜻하는 명사이다. 만족도란 그런 만족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만족은 외부 자극에 대한 인간 내부의 반응이기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문화적 기제가 작동하는 심리상태이므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도 없고, 또한 개인차와 세대차 그리고 지역차가 존재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대상에 대한 만족이 달라서 갈등이 일어날 소지도 존재하는 심리적 상태가 만족이다.

만족이란 자체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생활만족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행복, 긍정적인 자아존중 정도, 적절한 생활적응, 건전한 정신적 복지를 포함하는 다차원적며 일반적인 만족감 및 개인이 주관적으로 선택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감을 말한다(고양훈, 2003).

철학자 칸트는 만족이란 어떤 대상이 주체의 마음에 드는 상태로, 그 대상에 대해 주제가 쾌의 감정을 지니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판단력비판』에서 만족의 대상을 '쾌적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라는 세 가지로 나누었다. '쾌적한 것'은 주체에게 있어 단지 감각적인 쾌, 즉 자극에 의해 감성적으로 조건 지어진 만족을 수반하며, 간접적 또는 '좋은 것'은 이성에 의한 판정에서의 쾌, 즉 '유용한 것'에 대한 만족 또는 '순수하게 실천적인 만족'을 수반하는 것인 데 반해 '아름다운 것(das Schöne)'은 반성적 쾌, 즉 '미적 만족'을 수반하며, 동물과 신의 중간적 존재자로서 감성과 이성을 아울러 가지는 인간만이 그것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이신철, 2009)

Kalish는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수용하고, 전부는 아니더라도 주요한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효율적으로 주위의 환경과 잘 적응해 나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 정의하였다(남기민, 1998). 위의 두 분석은 '생활'이라는 용어보다 '삶'에 더 가까운 접근이다.

생활만족도란 개념은 1961년에 Neugarten이 활동이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LSI(Life Satisfaction Index)라는 생활만족도 척도를 개발하면서 처음으로 개념 정의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전예지, 2017). 생활만족도는 매우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며, 연구자에 따라 사기, 행복감, 주관적 안녕감, 삶의 질, 성공적 노화라는 용어를 통하여 표현된다(전수빈, 2014). 우리나라에서는 '삶의 만족도'라는 용어로 더러 분석되거나 연구되기도 한다.

Medley는 생활만족도를 개인의 정신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였다.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어진 기대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의 기대수준이

합리적으로 충족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생활만족도라고 말하고 있다(김영목, 2005).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상호작용을 생활만족도의 준거로 삼은 이유는 생활만족도의 합리성과 과학성을 더욱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족에 대한 수용이나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남이 대신 만족스러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우리나라 학자들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생활 만족도는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즉, 물질이든 정신이든 간에 인생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말한다(권중돈, 조주연, 2000).

우리나라에서 생활만족도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이효재는 “생활만족도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적어도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태도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권영길, 2008).

최성재(1986)는 개인이 인식하는 자신의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 삶의 활동 전망에 대한 긍정적 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노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한국형 생활 만족도 척도를 개발했다(전수빈, 2015).

박성연·최혜경(1985)은 생활 만족도란 삶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 간의 합치여부에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감으로써, 그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환경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생활의 역사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유송자, 2005).

이상의 생활 만족도 정의를 종합해보면 생활 만족도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강은경, 2013).

나. 노년기 생활만족도 개념에 따른 특성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련된 이론은, 노인을 사회학적 측면과 활동 측면, 자원의 유무나 자원교환의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고 주장되어 왔다(김원배, 2010). 이러한 이론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은퇴이론 또는 사회유리이론이라 불리는 분리이론(Disengagement Theory)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활력의 감퇴와 이에 따른 사회적 활동의 축소, 배우자의 죽음 등으로 전반적으로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이 감소한다는 이론이다(전수빈, 2014). 그리하여 노인은 모든 적극적인 활동으로부터 심리적 에너지를 거두어들이며, 이는 성공적인 노화과정이라고 규정한다(임현숙, 2008).

이러한 분리 결정은 개인과 사회 중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분리는 성인후기에 진입하면 노인은 외부세계의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스스로 분리되기를 원한다고 본다. 즉, 타인에 대한 관심도 감소하며 점차 자신에 몰입하는 선천적 경향성을 지니고 있어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심리적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이다(장휘숙, 2012).

분리이론에서는 은퇴는 불가피한 것이며 정상적이라는 주장이지만, 실제로 개인이 자신의 신체적 및 지적 조건, 연령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은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먼저 정년제와 같은 제도로써 분리시키는 것이다(김원배, 2010). 분리에 대한 선택은 노인 개인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분리이론은 노인의 소외현상을 당연시 여겨 노인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을 원천 배제하게 만들 수 있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람들의 자격요건을 제한함은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노인의 사회적 분리 또한 당연하게 여긴다. 퇴직제도가 바로 기능적인 면에서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여 개인을 일정 연령에 이르면 사회에서 분리시키는 것이다(리해근, 2012). 바로 이점에 있어, 분리이론은 남성중심 산업사회에 편향되었고, 노인을 위한 원조의 개입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노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도 사회가 노인을 배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리해근, 2012).

두 번째,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일수록 생활 만족도가 더 높다는 이론으로, 개인의 자아와 역할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노년기에 접어듦에 따라 역할상실을 경험하게 된 노인들은 긍정적인 자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역할들을 모색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와 활동참여와의 상관관계는 노인의 활동유형에 따라, 노인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개인차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금룡, 2002).

세 번째, 지속이론(Continuity Theory)은 과거에 많은 활동을 하던 노인은 계속 활동적인 일에 종사하기를 원하고, 과거에 활동을 적게 하던 노인은 은퇴 후에도 적은 활동을 함으로써 만족한다는 것이다(김태주, 2002).

네 번째, 교환이론(Exchange Theory)은 경제학의 공리주의와 심리학의 행동주의의 영향을 받아 사회적 행동의 기초형태를 설명하고자 제시된 이론이다(전수빈, 2014). 교환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보상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행동 혹은 인간관계를 택하게 된다는 것이다(임창희, 2004). 즉 교환자원이 많을수록 자신의 생활에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산업사회에서의 노인은 이러한 권력

자원의 획득이 젊은 세대보다 전반적으로 불리하여 삶의 만족도는 저하되는 것으로 본다(유주희, 2013). 그러나 보상과 비용 등 경제적인 측면에 치중했고, 무엇이 교환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섯 번째, 교환자원이론(Exchange Resource Theory)은 개인의 자원이 많을수록 더 큰 보상을 얻는다는 것이다. 개인은 보다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것들을 자원의 형태로 투입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은 행위 내지 행동을 유발하고 가능하게 한다. 또 자원의 종류나 가치에 따라 얻게 되는 보상에도 차이가 있다는 이론이다.

전통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노인이 갖고 있던 경험에 근거한 기술 및 기능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교환자원으로 여겨졌지만, 산업사회에서 노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불리하며 사회적으로 지위가 하락하게 되었다(전수빈, 2014). 그 결과 노인의 교환자원 상실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교환자원이론은,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재산의 축적이 없는 노인은 퇴직으로 인해 가족에 대한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 자원 면에서의 가치가 저하되는(김원배, 2010) 경로를 설명해 준다.

분리이론, 활동이론, 지속이론은 핵심 요인이 활동이 되고, 교환이론과 교환자원이론의 핵심요인은 자원이 된다. 노인에 있어 활동과 자원 중, 어느 것이 더 우선이라거나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활동과 자원 모두 노년기의 생활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임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개인적으로나 국가사회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한 담론을 경주하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노인의 삶의 만족도 관련 이론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이 기본적으로 복합 패러다임이라는 입장에서 노인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을 이해해야 한다(김원배, 2010).

최근 들어서나 또는 향후 전개될 고령사회 내지는 초고령 사회에서의 노

년기 생활만족도는 또 다른 관점이 적용될 지도 모른다. 지금까지는 노년기의 생활만족도의 궁극의 목적은 성공적인 노화에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한임섭, 1987). 하지만 지금 대중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활동적 노년기,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라고 불리는 신세대 노인들은 성공적인 노화를 넘어서, 노년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무엇이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 생활만족도 핵심 개념 또한 향후 변화되어 갈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다. 노년기 생활만족도 구성

만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주관적인데다 생활만족의 개념 또한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어, 생활만족을 구성하는 요소 또한 접근 방식이나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한 명의 노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인지적, 정서적 활동과 노인의 주변에서 작용하는 수많은 사건들과의 교류로 인해 다시 발생하는 감정 활동 들은 시시때때로 변화하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잠재의식으로 가라앉기도 한다. 생활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삶에 대한 만족의 근원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생활만족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평생교육에서 노년기 인구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교육만족도가 높으며, 교육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김종식, 2014). 이는 노년기 교육이 노년기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권중돈, 조주연, 2000)에서는 노인의 교육정도, 일상생활 동작능력, 경제활동 참여여부, 경제생활의 애로 정도, 주거편이도, 사회단체 활동 참여도, 친구수라는 7가지 변인이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인들이 노인복지 서비스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노인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 연구(고종욱, 김명숙, 2013)에서는 건강요인인 주관적 건강상태, 경제적 요인인 주관적 경제수준, 여가활동요인인 생산적 여가활동과 소비적 여가활동, 사회적지지 요인인 배우자 지지와 자녀지지 그리고 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외향성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체계 관점에서 생태체계 요인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전대성, 홍경숙, 2010)를 보면, 개인체계에서는 만성질환 등의 요소가, 미시체계 요인에서는 배우자의 지지가, 사회환경체계 요인에서는 사회활동 참여정도 등에서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노인들은 자신들의 노후생활에 대해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미시체계 변인군이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관계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배우자의 지지가 만족도에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통합하여 살펴보면 개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 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주로 성별, 연령, 배우자의 유무, 가족형태, 학력, 경제 수준, 건강 상태, 직업의 유무나 직종, 종교, 활동 참여가 여부와 활동의 종류, 교육 참여 여부와 교육의 종류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노년기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양적 조사도 필요하지만, 좀 더 심도 있고 세밀한 연구를 위해서는 질적 조사의 연구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최근 들어 노년기의 생활만족도 요인으로 등장한 것이 노인이 활동 상태

인데 그중에서도 직업 활동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노인의 직업 활동은 소득을 안정되게 유지하여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유지와 여가활동 증진, 사회적 지위를 유지 시켜줌으로서 성공적인 노년기 생활에 기여한다(장인협, 최성재, 2010). 그리고 적절한 활동수준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삶에 생기를 넣어 주고 그에 따라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의미를 가진다(김애순, 2000).

일부 연구(노정옥, 2004)에서는 노인의 직업역할 상실이 사회 역할상실로 이어져 낙담하거나, 무기력증에 걸리게 되고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을 시도하게 된다고 한다. 즉, 노인의 직업 활동은 생계유지와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동시에 역할활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역할상실에서 오는 무기력감과 상실감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이선아, 2008).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직업교육을 생활만족도의 구성요인으로 놓고 조사연구를 해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다.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생활만족도도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고 한다(권중돈, 조주연, 2000; 김춘택, 박종우, 2000).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이에 따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보장도 마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사회봉사활동·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이로써 대인관계에 있어서 타자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 사회관계망이 넓고 동시에 자아존중감도 높아질 수 있다(진가, 2016).

반면에 교육수준이 높으면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져서 자신의 실제수준에 대하여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은 생활만족도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오현숙, 2003)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교육수준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런 순

환고리에서 노인의 교육수준은 생활만족에 유의미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의 교육수준이 아니라 현재의 직업교육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불충분하다.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의 직업교육이 노년기 인구의 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노인 개인에게 있어서나 국가 정책에 있어 좋은 근거 자료가 될 것이다.

4. 선행연구

가. 노년기 직업교육 참여동기

Houle(1961)의 학습 참여동기 유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학의 성인교육 학습자들의 참여동기를 연구한 결과, 학습지향성의 동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희, 1977). 목표지향성 동기는 연령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혼보다 기혼자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지향형 동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혼자의 집단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로부터 한 세대가 지난 뒤, 중·고령 성인학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동기를 조사한 결과 성별, 연령, 경제활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학습지향성 동기가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력이 높은 변수임을 밝혀냈다(장희영, 2015).

이로서 볼 때, 우리나라의 성인학습자들의 알고자 하는 욕구, 배움에 대

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인후기나 노년기가 될수록 외적인 측면의 성취지향적 욕구로부터 벗어나, 내적인 만족과 자아실현 욕구충족에 관련된 참여동기가 강해지는 것으로 본 최운실의 주장과 일치성을 보여 참여동기가 고령자의 활동적 노화로서의 강력한 변수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으로는 하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참여 이유를 분석한 결과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홍기형, 나항진, 2002). 사회계층이 낮은 집단일수록 생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반면, 사회계층이 높은 집단일수록 성취나 자아실현의 욕구충족에 관련된 교육 참여동기가 강하게 나타난다(이기환, 2003). 이처럼 개인별 특성에 따른 참여동기는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동기 유형과 몰입 특징에 관한 연구에서 나창훈(2006)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에는 다양한 동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 다양한 동기들은 몇 개의 유형으로 구조화 될 수 있다. 둘째, 성인학습자가 교육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적어도 둘 이상의 상호 유기의 관련성을 지니는 복합적인 유형이 존재한다. 셋째, 동기 유형은 그 성격에 있어 대체로 개인적, 사회적 또는 내재지향적, 외재 지향적 유형으로 대변될 수 있다(오지혜, 2015). 넷째, 참여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이나 외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참여 목적만으로는 학습자의 진정한 참여 동기를 추출하기 어렵다(원대로, 2018). 이는 노년기 교육 참여동기와 관련한 연구자들의 연구와 일치한다 하겠다.

이경아(2016)의 연구에서도 성인들의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의 답은 어떤 간단한 공식으로 대변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동기는 학습

자 집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며, 하나의 이유가 아닌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혜엽(2008)은 노년기 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 다음의 네 가지 참여요인을 추출했다. 첫째, 학습에 대한 계속적 욕구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둘째, 사회봉사 활동과 사회참여활동을 위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셋째, 건강한 삶을 위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넷째, 나이 듦으로 인해 경제능력 저하와 기회 상실의 경험은 미래의 불안감과 위기감을 갖게 하므로 교육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한다고 하였다.

성인평생학습 중에서도 직업과 관련한 학습 참여동기를 살펴보면, 2004년 정부에서 최초로 실시한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사업참여자의 설문분석 결과, 소득마련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서,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강은나, 2017). 김신애(2007)는 여자 노인이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기는 경제적 수입이지만, 그 참여성과는 근로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도움 외에도 규칙적인 활동으로 신체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됨을 보고했다.

고령자취업교육 참여동기와 효과에 관한 연구는 참여동기와 효과에 대한 구조분석을 통해 다음의 결과를 밝혀냈다(기영화, 전계향, 2006). 첫째, 고령자 취업교육 참여동기는 노년기 주변상황의 영향을 받는다. 둘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고령자 취업교육 참여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고령자 취업교육은 여가를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이나 봉사활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참여요인이 작용한다. 넷째, 참여자들은 일을 함으로써 자아실현을 하고 싶어 한다. 다섯째, 고령자 취업교육 참여 결과, 자아감증진·건강회복·사회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효과가 있다(기영화, 전계향, 2006). 이런 연구들을 통해 보면 참여동기가 학업성취와 더불어 자아실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변인들과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향란(2012)은 노년기의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활동적 노화간의 관계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밝혀냈다. 첫째, 고령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에는 활동지향성, 목적지향성, 학습지향성 요인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Houle(1961)의 참여동기 유형이 일반 성인에게만 학업성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일반 성인보다 고령자에게는 순수한 학습지향이나 목적지향 보다 활동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성향이 나타날 수 있지만, 학습활동은 지속적이고 평생을 간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인간이란 워낙 복잡다단한 생물체라서 한 마디로 규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인간을 지칭하는 학명 중, 호모 에루디티오(Homo Eruditio)-학습하는 인간-은 학습에 대한 인간의 본능과 욕구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정체성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박미경(2001)은 나이를 떠나 인간의 배움의 주된 참여동기는 자아실현이며 학문적인 연구에 관심이 많아서 참석한다고 하였다.

나. 노년기 직업교육 참여동기와 자기효능감

먼저 학습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효능감 생성의 인지, 동기, 정서 및 선택의 과정이 별개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작용하며 인간기능을 조절하므로 동기와 효능감 및 만족도를 어떤 공식에 대입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개인특성과 처해진 상황의 작은 변화에도 그 값들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 변수들을 포착하고자 하는 학자들의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효능감은 학업 내지 학습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모스크바와 로스앤젤레스 아동들 대상의 연구를 보면, 가장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것은 동베를린 아동들이며, 그 다음이 모스크바, 그다음이 서베를린, 가장 낙천적이고 자유로운 자기효능감은 로스앤젤레스 아동들에게서 나타났다. 이중 효능감과 학업성적의 높은 상관관계는 동베를린이었고, 그 다음이 모스크바, 그다음이 서베를린, 가장 낮은 상관은 로스앤젤레스 아동들이었다. 이 연구결과는 집단 성취와 사회변화는 자기효능에 그 뿌리가 있음을, 효능감 신념의 기능적 가치에 대한 문화적 보편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Bandura, 1995). 이는 효능감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이 속한 집단과 사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역설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사회의 지속적 연구와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적 기능과 생존율의 관계'를 조사한 와다히데끼는 노인들의 병질환보다 노인이 된 후부터의 지적 기능이 생존율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4년에 걸쳐 조사된 이 연구에서 개개인의 요소, 즉 연령, 학력, 심장병, 암, 정보처리속도, 유동성 지능 중 지적 능력에 해당하는 정보 처리 속도와 유동성 지능이 높을수록 사망률이 떨어진다고 밝혔는데, 이는 암의 유무보다 지적 기능이 사망률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나이를 먹어서 활발하게 두뇌를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좋고 수명 연장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이성림 역, 2002). 특히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자기 자신이 건강을 해지는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면역기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Wiedenfeldet al., 1990), 고통도 잘 견딘다고 한다(Litt, 1988; Manning & Wright, 1983).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차윤지(2011)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

성학습자들의 평생교육 참여동기 유형은 배움 자체의 즐거움으로 참여한다는 학습지향성 동기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활동지향성, 마지막으로 목표지향성 순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참여 여성학습자들은 비교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았으며, 또한 학습지향성 참여동기가 높은 학습자가 다른 동기유형의 학습자들에 비해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과제를 지속하는 시간도 길고, 자신이 원하는 학업수행 목표가 낮은 사람에 비하여 비교적 높게 설정된다는 연구(이경아, 2004)와 개인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강하여 교육적 성취를 높게 한다는 연구결과(윤운성, 2000)와 같다. 본 연구에서도 학습지향성 학습자가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게 나왔다. 따라서 학습지향성을 주요한 학습 참여동기로 변화시킬 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성인학습자의 교육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이 높고, 교육 참여동기 요인 중 학습지향성 동기가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과 함께 투입되어 자기주도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안미영, 2012) 결과도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교육 참여동기와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학습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성인학습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노인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선택하여 연구한 이라금(2013)은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 동화구연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노인들이 통제집단의 노인들보다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동화를 구연하면서 자신의 삶과 결부된 경험과 타인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 올바른 사고를 증진시키고, 무의식에 있는 감정을 분출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워 자신을 이해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조광희, 2010)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참여하지 않는 노인보다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과 자기효능감에 참여특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는 개인특성별 참여동기와 자기효능감이 연관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자기효능감 측정 시점이 종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했고, 참여 특성상, 지속적인 참여를 원할수록, 참여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2회 이상 참여했을 때, 자기효능감을 높게 인식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건희(2016)의 뉴실버세대의 자기효능감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령사회의 주역이 될 뉴실버세대의 자기효능감은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직접적 변인이 되며, 경제활동욕구가 노인일자리사업에 동시에 투입된 두 변인의 영향력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서 정부지자체에서는 이에 따른 일자리사업 창출과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시니어창업교육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을 받는다고 하여 자기효능감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결과(박민규, 2015)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는 교육의 불필요성을 설명하기보다는 교육을 통해 창업의 어려움을 더욱 여실히 알게 된 결과로서 교육생들이 가진 경력과 기술이 창업을 하기 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결론적으로는 창업교육이 창업자신감에는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지만 창업동기 및 교육에 기대하는 바에는 효과를 미침으로써 올바른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효과는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 노년기 직업교육 참여동기와 생활만족도

노인교육을 통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도 개인 특성별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년기에 이를수록 개인차가 크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먼저 김명자(1982)의 연구에서는 교육을 이수한 남자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고, 서병숙(1989)의 연구에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김재인(1987)의 연구에서는 사회교육에 참여하는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들은 생활만족도에 한해서는 성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조사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그 집단만의 특수성과 개인차 등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활동이론가들은 생활만족도는 연령과 관계없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연령은 다양한 역할에 사람들을 할당하기 위한 기준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역할이 다양화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지 않게 보상되거나 가치화될 수 있기 때문에 노년기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김재인, 1987).

일반상식으로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이 없는 노인들보다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반해 최혜경은 배우자 상실의 슬픔보다는 배우자 상실 이후, 이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 때문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여자노인들에 있어서는 경제적 박탈이 특히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김연, 2001).

동거의 형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이 다수였지만, 장상희(1983)의 연구에서는 확대가족의 노인이 핵가족의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며, 별거노인들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서병숙(1989)의 연구에서는 노인부부만 살 때 정서적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본 조사에서는 자녀들 보다는 부부가, 부부보다는 동거나 기관입소자가 더욱 좋은 점수를 보이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

종교활동과 관련한 노년기 생활만족도 선행연구에서 이우복(1993)은 기독교, 천주교를 믿는 노인이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불교, 유교를 믿는 노인이었고, 종교가 없는 노인이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최근(김종식, 2014) 연구에서는 종교는 교육참여동기나 자기효능감 및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함을 밝혀냈다.

보은, 옥천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박기권(2004)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노인교육을 받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생활만족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노인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이 높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노인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용돈이 많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노인교육은 생활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인 것이다. 하지만 앞선 김연(2001)의 연구 결과에서는 노인교육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간의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보은, 옥천이라는 비교적 시골의 교육환경 내지는 교육수준에서 기인한 것 일수도 있다.

그런가하면, 활동요인에 따른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 차이 분석에서의 결과는 이채롭다. 활동을 하는 노인이 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활동요인의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결과 운동단체 및 정치단체 월 참여빈도, 사교단체 가입여부가 한국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직업활동, 종교활동, 문화학습활동, 봉사활동 등의 요인들은 상관관계가 너무 낮아 유의한 관계를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다(김원배, 2010). 이는 활동요인 보다는

자원 요인이 한국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크게 작용하는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내재적 자원의 확보를 위한 노인고용창출 지원사업, 직업능력교육, 기초연금의 현실화 등 노인 소득지원 정책과 노인 소득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는 당위성이 성립된다 하겠다.

라. 노년기 직업교육 참여동기와 자기효능감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

노년기 직업교육을 대상으로 하여 참여동기 및 그와 관계한 자기효능감이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에 노년기 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 전반에 걸친 참여동기 및 그와 연관된 자기효능감 및 생활만족도 전체를 아우르며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평생교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활만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역시 상승되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생활만족도 역시 높아질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권영길, 2007). 신이(2013)는 노인 229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에 참여한 노인과 비참여 노인의 자기효능감을 비교한 결과, 참여 노인들이 비참여 노인보다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노인교육 수강자와 비수강자의 자기효능감 점수의 최대, 최소, 평균값을 미뤄봤을 때, 노인교육을 수강한 자가 비수강자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김진영, 2009)도 발표되었다.

노년기 취업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노인들은 취업을 통해 생계유지 뿐 만 아니라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역할 참여 등 통합적인 욕구의 충족을 기대한다고 하였으며(김동배, 2009), 황진수(2001)는 노인의 빈곤해결의 가치와 함께 소외감이나 고립감을 해소시키고 나아가서 능동적인 사회

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컴퓨터 교육을 받은 중고령자의 자기효능감과 행복감이 삶의 질에 대한 기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김민지, 2017)도 발표되었다. 고령자 대상 직업교육훈련 후 조사에서는 노년기 학습자가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과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 그리고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음을 밝혔다(전승례, 2008).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사도 있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이 자신감에서만 약간 낮았고, 다른 요인인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삶의 만족도에서 모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 후의 노년에도 경제 상태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은 오히려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김숙희, 2014). 이는 향후 노년기직업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반영되어야 할 요인이라 하겠다.

노인평생교육 참여동기와 교육만족도 및 삶의 질 간의 관계 연구 결과(김종식, 2014)는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선행연구이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이 드러났다. 첫째,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클수록 교육만족도가 높다. 강사의질과 만족도와 활동지향성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목표지향성과 활동지향성, 그리고 학습지향성 등 세 가지 유형은 교육내용과 교육환경, 그리고 강사의 질과 교육결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활동지향성은 강사의 질 만족도 간의 관계만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육 내용, 교육 환경, 강사의 질과 교육만족도는 대체로 삶의 질 구성요소인 생활만족도, 긍정적 사고, 자기효

능감 및 정서적 안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으며, 단지 강사의 질 만족도와 생활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정서적 안정감 간의 관계 그리고 교육결과 만족도와 긍정적 사고 간의 관계만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교생활은 정서적 안정감에만 유의하게 작용할 뿐, 나머지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

연구 대상을 청년층, 성년층, 장년층, 노인층으로 구분하여 자기효능감을 살펴본 김기량(2007)의 평생교육 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었다. 각 연령층 별로 일반적·신체적 등 자기효능감 전체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각 층별 평균을 놓고 보았을 때, 연령이 많아질수록 자기효능감의 평균 점수가 낮아지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효능감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연령층별 생활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도 자기효능감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연령이 많아질수록 생활만족도의 평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런 한 편, 상관분석 결과, 평생교육 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는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고,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역시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권영길(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더불어 참여 기간이 길면 길수록 효능감은 높아진다는 논리적 바탕이 될 수 있다.

최채은(2012)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밝혔다.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을 포함한 40대 이상 성인들에 있어 참여동기는 학습지향형이 가장 높은 분표를 보였으며, 참여 전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심리적정서적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증가하였으며, 높아진 자기효능감과 더불어 생활만족도도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갑현(2016)은 은퇴자 여가문화활동 참여는 자기효능감의 변화발전을 가져와 생활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한국 은퇴자의 현실은 시간과 돈이 없어 여가문화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이 또한 노년기 일자리 창출 및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기도 하다. 노년기를 의식주를 해결해줘야 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잠재력을 소지한 역량개발의 대상으로 보는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부산지역에 소재한 평생학습 유관 기관 또는 시설에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노년기학습자들이다. 노년기 학습자라 함은 이 연구에서 정한 바대로 60세 이상의 남녀 학습자들이다.

일반적 특성 변인으로 성별, 연령, 동거형태, 최종학력, 경제상태, 과거직업군을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 Ⅲ-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여자노인 학습자들이 남자노인 학습자들보다 그 수가 더 많았고, 연령대에 있어서는 65세에서 70세의 노인이 가장 많았다. 75세 이상의 고령자도 많아서 60에서 65세의 노인들의 수와 동수를 기록했다. 동거형태는 노년기 생활만족도를 구성하는 주요한 변인인데(이민아, 2012), 독거노년기 학습자가 20.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기타 형태(동거 및 시설 입소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 양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N=338)

구분	내용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155	45.9
	여자	183	54.1
연령	60세~64세	74	21.9
	65세~70세	110	32.5
	71세~74세	80	23.7
	75세 이상	74	21.9
동거형태	혼자	68	20.1
	부부만 동거	187	55.3
	결혼한 아들과 동거	14	4.1
	결혼한 딸과 동거	17	5.0
	미혼의 자녀와 동거	48	14.2
	기타	4	1.2
최종학력	무학	17	5.0
	초졸	60	17.8
	중졸	42	12.4
	고졸	133	39.3
	대졸 이상	86	25.4
경제상태	매우 좋은 편	3	.9
	좋은 편	75	22.2
	보통	209	61.8
	나쁜 편	45	13.3
	매우 나쁜 편	6	1.8
과거 직업군	사무직	37	10.9
	기술, 노동직	56	16.6
	공무원 및 교직	52	15.4
	사업	60	17.8
	서비스직	49	14.5
	기타	84	24.9

2. 측정도구

가. 직업교육 참여동기 척도

직업교육 참여 동기 문항은 Houle(1961)의 참여 동기 구성 요인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다. 하위요인으로는 목표지향성 관련 5문항, 활동지향성 관련 6문항, 학습지향성 관련 4문항으로 3개의 영역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분석결과 목표지향성 5개 문항의 Cronbach's α 계수가 .520로 나타나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에 Cronbach's α 계수 값을 떨어뜨리는 1번, 4번, 5번 문항을 제거였더니 Cronbach's α 계수가 .655로 높아져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활동지향성 6개 문항의 Cronbach's α 계수는 .613으로 나타나 비교적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에 Cronbach's α 계수 값을 떨어뜨리는 11번 문항을 제거였더니 Cronbach's α 계수가 .797로 높아져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학습지향성 4개 문항의 Cronbach's α 계수는 .890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또한 직업교육 참여 동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49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직업교육 참여 동기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직업교육 참여 동기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목표지향형	2, 3	2	.655
활동지향형	6, 7, 8, 9, 10	5	.797
학습지향형	12, 13, 14, 15	4	.860
전체		11	.849

나.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는 김아영, 차정은(1996)이 만든 것을 김아영(1997)이 수정 보완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자신감 7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12문항, 과제 난이도 선호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24문항 중 1번,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13번, 16번 문항은 역문항으로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자심감 7개 문항의 Cronbach's α 계수가 .836으로 나타났고, 자기조절효능감 12개 문항의 Cronbach's α 계수가 .905으로 나타났으며, 과제 난이도 선호 5개 문항의 Cronbach's α 계수가 .696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또한 자기효능감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99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자신감	1*, 3*, 5*, 10*, 11*, 13*, 16*	7	.836
자기조절효능감	2, 4, 7, 8, 12, 14, 17, 19, 20, 21, 23, 24	12	.905
과제난이도 선호	6*, 9*, 15, 18, 22	5	.696
전체		24	.899

* 역문항

다. 생활만족도 척도

생활만족도 척도는 1961년 Neugarten, Havighurst & Tobin이 개발한 것을 최성재(1986)가 노인 인구만을 대상으로 한국 실정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이며,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분석결과 생활만족도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계수가 .891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생활만족도 척도의 문항 및 신뢰도는 <표 Ⅲ-4>와 같다.

<표 Ⅲ-4> 생활만족도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생활만족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	.891

* 역문항

3. 자료 수집 방법

이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설문지를 사용한 조사법이다. 구체적으로 부산 소재 시니어클럽과 부산 소재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부산 남구 소재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과 부산시 노인 교육 지원센터 그리고 부산 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와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노년기 학습자 중 400여 명 정도를 무선표집하였다. 그 중 불성실한 응답지 62부는 배제하고 338부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대상으로 지정한 학습자들이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전화와 이메일로 먼저 협조를 구한 다음, 소속 기관 임직원의 도움과 직접 방문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4. 자료 처리 방법

모든 데이터를 SPSS 21에 코딩한 뒤, 먼저 노년기 직업교육 참여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개인적 특성별 직업교육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 참여가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직업교육 참여동기는 평균 3.10점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종속변인인 자기효능감은 3.15점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는 3.37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직업교육 참여 동기 하위요인 중 활동지향성(3.27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학습지향성(3.16점), 목표지향성(2.86점)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3.41점)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신감(3.27점), 과제난이도선호(2.77점)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 결과는 <표Ⅳ-1>에 나타나 있다.

<표Ⅳ-1> 변인의 기술통계

구분		변인명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독립변인	직업교육참여동기	목표지향성	338	1.00	5.00	2.86	.853
		활동지향성	338	1.40	5.00	3.27	.730
		학습지향성	338	1.00	5.00	3.16	.839
		전체	338	1.67	4.93	3.10	.605
종속	자기	자신감	338	1.57	5.00	3.27	.603

변인	효능감	자기조절효능감	338	1.82	5.00	3.41	.543
		과제난이도선호	338	1.20	5.00	2.77	.549
		전체	338	1.96	5.00	3.15	.437
	삶의 만족도	생활만족도	338	1.95	4.80	3.37	.45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검증

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교육 참여동기의 차이

노년기학습자들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동거형태, 최종학력, 건강상태, 경제상태, 과거 직업군, 종교)에 따른 직업교육 참여동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직업교육 참여동기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년기학습자들의 직업교육 참여동기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목표지향성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3.01점)가 여자(2.73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지향성도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3.34점)가 남자(3.18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지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표본 t-검증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표 Ⅳ-2> 성별에 따른 직업교육 참여동기의 차이(N=388)

구분		N	M	SD	t
목표지향성	남자	155	3.01	0.884	3.016**
	여자	183	2.73	0.806	
활동지향성	남자	155	3.18	0.714	-1.988*
	여자	183	3.34	0.738	
학습지향성	남자	155	3.12	0.819	-.717
	여자	183	3.19	0.857	
직업교육 참여동기	남자	155	3.11	0.581	.272
	여자	183	3.09	0.626	

*p<.05, **p<.01

연령에 따른 직업교육 참여동기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년기학습자들의 직업교육 참여 동기는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60세~64세가 65세~70세보다 직업교육 참여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목표지향성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60세~64세가 70세 이상보다 직업교육 참여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지향성도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습지향성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결과는 <표 Ⅳ-3>과 같다.

<표 Ⅳ-3> 연령에 따른 직업교육 참여동기의 차이(N=338)

구분		N	M	SD	F	Scheffe
목표지향성	60세~64세[1)]	74	3.11	0.919	3.756*	1>4
	65세~70세[2)]	110	2.86	0.891		
	71세~74세[3)]	80	2.82	0.789		
	75세 이상[4)]	74	2.65	0.739		
활동지향성	60세~64세[1)]	74	3.33	0.798	3.139*	N.S
	65세~70세[2)]	110	3.10	0.681		
	71세~74세[3)]	80	3.39	0.679		
	75세 이상[4)]	74	3.33	0.752		
학습지향성	60세~64세[1)]	74	3.31	0.865	2.531	N.S
	65세~70세[2)]	110	2.99	0.800		
	71세~74세[3)]	80	3.19	0.798		
	75세 이상[4)]	74	3.22	0.886		
직업교육 참여동기	60세~64세[1)]	74	3.25	0.583	3.076*	1>2
	65세~70세[2)]	110	2.98	0.591		
	71세~74세[3)]	80	3.13	0.584		
	75세 이상[4)]	74	3.07	0.643		

*p<.05,

동거형태에 따른 직업교육 참여동기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년기학습자들의 직업교육 참여동기는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혼자 사는 집단, 부부만 사는 집단, 결혼한 딸과 사는 집단, 기타 집단이 결혼한 아들과 사는 집단보다 직업교육 참여 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목표지향성은 동거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지향성은 동거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부부만 사는 집단, 결혼한 딸과 사는 집단이 결혼한 아들과 사는 집단 보다 직업교육 참여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지향성도 동거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혼자 사는 집단, 부부만 사는 집단, 결혼한 딸과 사는 집단, 기타 집단이 결혼한 아들과 사는 집단 보다 직업교육 참여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Ⅳ-4>에 나타나 있다.

<표 Ⅳ-4> 동거형태에 따른 직업교육 참여동기의 차이(N=338)

구분		N	M	SD	F	Scheffe
목표지향성	혼자[1]	68	2.80	0.923	1.804	N.S
	부부만[2]	187	2.88	0.815		
	결혼한 아들과[3]	14	2.36	0.663		
	결혼한 딸과[4]	17	2.88	0.674		
	미혼 자녀와[5]	48	2.94	0.971		
	기타[6]	4	3.63	0.479		
활동지향성	혼자[1]	68	3.22	0.781	4.739***	2, 4>3
	부부만[2]	187	3.34	0.662		
	결혼한 아들과[3]	14	2.64	0.561		
	결혼한 딸과[4]	17	3.72	0.539		
	미혼 자녀와[5]	48	3.07	0.852		
	기타[6]	4	3.40	0.924		
학습지향성	혼자[1]	68	3.15	0.911	5.323***	2, 6>3
	부부만[2]	187	3.27	0.765		
	결혼한 아들과[3]	14	2.39	0.633		
	결혼한 딸과[4]	17	3.06	0.986		
	미혼 자녀와[5]	48	2.91	0.842		
	기타[6]	4	4.13	0.629		

직업교육 참여동기	혼자[1)]	68	3.06	0.624	5.285***	1, 2, 4, 6>3
	부부만[2)]	187	3.16	0.548		
	결혼한 아들과[3)]	14	2.46	0.474		
	결혼한 딸과[4)]	17	3.22	0.621		
	미혼 자녀와[5)]	48	2.97	0.693		
	기타[6)]	4	3.72	0.464		

***p<.001

최종학력에 따른 직업교육 참여동기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년기학습자들의 직업교육 참여 동기는 최종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요인 중 목표지향성은 최종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활동지향성은 최종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고등학교 졸업이 중학교 졸업보다 직업교육 참여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향성도 최종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고등학교 졸업이 무학보다 직업교육 참여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표 Ⅳ-5> 최종학력에 따른 직업교육 참여동기의 차이(N=338)

구분		N	M	SD	F	Scheffe
목표지향성	무학[1]	17	2.62	0.719	2.473*	N.S
	초졸[2]	60	3.07	0.985		
	중졸[3]	42	2.88	0.882		
	고졸[4]	133	2.72	0.796		
	대졸 이상[5]	86	2.97	0.818		
활동지향성	무학[1]	17	3.08	0.637	3.939**	4>3
	초졸[2]	60	3.13	0.668		
	중졸[3]	42	2.98	0.648		
	고졸[4]	133	3.40	0.727		
	대졸 이상[5]	86	3.35	0.781		
학습지향성	무학[1]	17	2.59	0.492	5.316***	4>1
	초졸[2]	60	2.99	0.780		
	중졸[3]	42	2.93	0.762		
	고졸[4]	133	3.34	0.868		
	대졸 이상[5]	86	3.23	0.840		
직업교육 참여동기	무학[1]	17	2.76	0.499	2.929*	N.S
	초졸[2]	60	3.06	0.576		
	중졸[3]	42	2.93	0.531		
	고졸[4]	133	3.15	0.626		
	대졸 이상[5]	86	3.18	0.616		

*p<.05, **p<.01, ***p<.001

경제상태에 따른 직업교육 참여동기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년기학습자들의 직업교육 참여동기는 경제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경제상태가 좋은 편이 나쁜 편보다 직업교육 참여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목표지향성은 경제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지향성은 경제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검증 결과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습지향성은 경제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경제상태가 좋은 편이 나쁜 편보다 직업교육 참여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Ⅳ-6>에 나타나 있다.

<표 Ⅳ-6> 경제상태에 따른 직업교육 참여동기의 차이(N=338)

구분		N	M	SD	F	Scheffe
목표지향성	매우 좋은 편[1]	3	3.00	1.000	1.831	N.S
	좋은 편[2]	75	3.03	0.753		
	보통[3]	209	2.81	0.845		
	나쁜 편[4]	45	2.73	1.026		
	매우 나쁨[5]	6	3.42	0.492		
활동지향성	매우 좋은 편[1]	3	4.27	0.702	4.351**	N.S
	좋은 편[2]	75	3.50	0.705		
	보통[3]	209	3.20	0.725		
	나쁜 편[4]	45	3.12	0.714		
	매우 나쁨[5]	6	3.20	0.490		
학습지향성	매우 좋은 편[1]	3	4.17	1.233	3.933**	2>4
	좋은 편[2]	75	3.35	0.792		

	보통[3]	209	3.13	0.830		
	나쁜 편[4]	45	2.86	0.837		
	매우 나쁨[5]	6	3.46	0.797		
직업교육 참여동기	매우 좋은 편[1]	3	3.81	0.622	5.027**	2>4
	좋은 편[2]	75	3.29	0.495		
	보통[3]	209	3.05	0.607		
	나쁜 편[4]	45	2.90	0.675		
	매우 나쁨[5]	6	3.36	0.407		

*p<.05, **p<.01

과거 직업군에 따른 직업교육 참여동기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년기학습자들의 직업교육 참여동기는 과거 직업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목표지향성은 과거 직업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기술, 노동직이 사업보다 직업교육 참여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지향성도 과거 직업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 및 교직이 기술, 노동직보다 직업교육 참여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지향성은 과거 직업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표 Ⅳ-7> 과거 직업군에 따른 직업교육 참여동기의 차이(N=338)

구분		N	M	SD	F	Scheffe
목표지향성	사무직[1]	37	3.08	0.812	3.331**	2>4
	기술, 노동직[2]	56	3.18	1.029		
	공무원 및 교직[3]	52	2.88	0.706		
	사업[4]	60	2.65	0.727		
	서비스직[5]	49	2.74	0.985		
	기타[6]	84	2.76	0.762		
활동지향성	사무직[1]	37	3.25	0.775	4.098**	3>2
	기술, 노동직[2]	56	3.01	0.708		
	공무원 및 교직[3]	52	3.54	0.632		
	사업[4]	60	3.36	0.825		
	서비스직[5]	49	3.07	0.832		
	기타[6]	84	3.33	0.562		
학습지향성	사무직[1]	37	3.05	0.731	2.164	N.S
	기술, 노동직[2]	56	3.07	0.880		
	공무원 및 교직[3]	52	3.41	0.815		
	사업[4]	60	3.15	0.920		
	서비스직[5]	49	2.93	0.822		
	기타[6]	84	3.25	0.790		
직업교육 참여동기	사무직[1]	37	3.13	0.562	1.895	N.S
	기술, 노동직[2]	56	3.08	0.661		
	공무원 및 교직[3]	52	3.28	0.574		
	사업[4]	60	3.06	0.667		
	서비스직[5]	49	2.92	0.689		
	기타[6]	84	3.11	0.473		

**p<.01

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노년기학습자들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동거형태, 최종학력, 건강상태, 경제상태, 과거 직업군, 종교)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년기학습자들의 자기효능감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3.24점)가 여자(3.07점)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자신감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 효능감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3.52점)가 여자(3.3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제난이도 선호도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2.88점)가 여자(2.67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표본 t-검증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표 Ⅳ-8>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N=388)

구분		N	M	SD	t
자신감	남자	155	3.32	0.641	1.312
	여자	183	3.23	0.568	
자기조절효능감	남자	155	3.52	0.537	3.660***
	여자	183	3.31	0.530	
과제난이도선호	남자	155	2.88	0.562	3.523***
	여자	183	2.67	0.520	
자기효능감전체	남자	155	3.24	0.449	3.608***

	여자	183	3.07	0.412

*p<.05, ***p<.001

연령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년기학습자들의 자기효능감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60세~64세가 71세~74세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자신감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조절 효능감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60세~64세가 71세~74세와 75세 이상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제난이도 선호는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표 Ⅳ-9> 연령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N=338)

구분		N	M	SD	F	Scheffe
자신감	60세~64세[1)]	74	3.44	0.723	2.647*	N.S
	65세~70세[2)]	110	3.23	0.585		
	71세~74세[3)]	80	3.19	0.531		
	75세 이상[4)]	74	3.25	0.550		
자기조절 효능감	60세~64세[1)]	74	3.64	0.549	8.183***	1>3,4
	65세~70세[2)]	110	3.44	0.487		
	71세~74세[3)]	80	3.26	0.516		
	75세 이상[4)]	74	3.29	0.569		
과제난이도 선호	60세~64세[1)]	74	2.81	0.607	.458	N.S

	65세~70세[2]	110	2.72	0.493		
	71세~74세[3]	80	2.79	0.557		
	75세 이상[4]	74	2.77	0.564		
자기효능감 전체	60세~64세[1]	74	3.29	0.549	3.794*	1>3
	65세~70세[2]	110	3.13	0.377		
	71세~74세[3]	80	3.08	0.387		
	75세 이상[4]	74	3.10	0.419		

*p<.05, ***p<.001

동거형태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년기학습자들의 자기효능감은 동거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기타 집단이 혼자 사는 집단, 부부만 사는 집단, 결혼한 아들과 사는 집단, 결혼한 딸과 사는 집단, 미혼 자녀와 사는 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자신감은 동거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부부만 사는 집단, 미혼 자녀와 사는 집단, 기타 집단이 결혼한 딸과 사는 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 효능감은 동거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기타 집단이 혼자 사는 집단과 결혼한 아들과 사는 집단보다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제난이도 선호도 동거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기타 집단이 혼자 사는 집단, 결혼한 딸과 사는 집단, 미혼 자녀와 사는 집단보다 과제난이도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Ⅳ-10>에 나타나 있다.

<표 Ⅳ-10> 동거형태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N=338)

구분		N	M	SD	F	Scheffe
자신감	혼자[1]	68	3.20	0.749	4.128**	2,5,6>4
	부부만[2]	187	3.29	0.562		
	결혼한 아들과[3]	14	3.34	0.443		
	결혼한 딸과[4]	17	2.78	0.482		
	미혼 자녀와[5]	48	3.37	0.482		
	기타[6]	4	4.00	0.825		
자기조절 효능감	혼자[1]	68	3.27	0.609	3.891**	6>1,3
	부부만[2]	187	3.43	0.521		
	결혼한 아들과[3]	14	3.16	0.443		
	결혼한 딸과[4]	17	3.42	0.454		
	미혼 자녀와[5]	48	3.53	0.515		
	기타[6]	4	4.20	0.291		
과제난이도 선호	혼자[1]	68	2.69	0.639	4.126**	6>1,4,5
	부부만[2]	187	2.83	0.477		
	결혼한 아들과[3]	14	2.70	0.501		
	결혼한 딸과[4]	17	2.51	0.621		
	미혼 자녀와[5]	48	2.66	0.584		
	기타[6]	4	3.65	0.412		
자기효능감 전체	혼자[1]	68	3.05	0.530	5.108***	6>1,2,3, 4,5
	부부만[2]	187	3.18	0.384		
	결혼한 아들과[3]	14	3.06	0.294		
	결혼한 딸과[4]	17	2.90	0.365		
	미혼 자녀와[5]	48	3.19	0.447		
	기타[6]	4	3.95	0.506		

**p<.01, ***p<.001

최종학력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년기학습자들의 자기효능감은 최종학력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고등학교 졸업이 중학교 졸업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이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자신감은 최종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이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보다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 효능감은 최종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고등학교 졸업이 무학, 중학교 졸업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이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난이도 선호도 최종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고등학교 졸업이 중학교 졸업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이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Ⅳ-11>과 같다.

<표 Ⅳ-11> 최종학력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N=338)

구분		N	M	SD	F	Scheffe
자신감	무학[1)]	17	3.14	0.574	8.260***	5>2,3,4,
	초졸[2)]	60	3.14	0.616		
	중졸[3)]	42	3.16	0.525		
	고졸[4)]	133	3.18	0.591		
	대졸 이상[5)]	86	3.58	0.559		
자기조절 효능감	무학[1)]	338	3.27	0.603	11.448***	4>1,3 5>1,2,3
	초졸[2)]	17	3.02	0.372		

	중졸[3]	60	3.31	0.583		
	고졸[4]	42	3.08	0.483		
	대졸 이상[5]	133	3.47	0.506		
과제난이도 선호	무학[1]	86	3.62	0.507	7.209***	4>3 5>2,3
	초졸[2]	338	3.41	0.543		
	중졸[3]	17	2.69	0.375		
	고졸[4]	60	2.64	0.604		
	대졸 이상[5]	42	2.45	0.548		
자기효능감 전체	무학[1]	133	2.82	0.520	13.045***	4>3 5>1,2,3,4
	초졸[2]	86	2.94	0.505		
	중졸[3]	338	2.77	0.549		
	고졸[4]	17	2.95	0.298		
	대졸 이상[5]	60	3.03	0.438		

***p<.001

경제상태에 따른 직업교육 참여 동기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년기학습자들의 자기효능감은 경제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경제상태가 매우 좋은 편이 좋은 편, 보통, 나쁜 편, 매우 나쁜 편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좋은 편이 보통, 나쁜 편, 매우 나쁜 편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자신감은 경제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매우 좋은 편이 보통, 나쁜 편, 매우 나쁜 펌보다 자심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좋은 편이 보통과 나쁜 편보다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 매우 나쁜 편보다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 효능감은 경제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사후검증 결과 매우 좋은 편이 좋은 편, 보통, 나쁜 편, 매우 나쁜 편보다 자심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좋은 편이 보통과 나쁜 편, 매우 나쁜 편보다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난이도 선호는 경제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경제상태가 매우 좋은 편이 좋은 편, 보통, 나쁜 편, 매우 나쁜 편보다 자심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좋은 편이 나쁜 편보다 과제난이도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Ⅳ-12>와 같다.

<표 Ⅳ-12> 경제상태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N=338)

구분		N	M	SD	F	Scheffe
자신감	매우 좋은 편[1]	3	4.29	0.623	14.852***	1>3,4,5 2>3,4 3>5
	좋은 편[2]	75	3.56	0.610		
	보통[3]	209	3.20	0.550		
	나쁜 편[4]	45	3.18	0.517		
	매우 나쁨[5]	6	2.14	0.487		
자기조절 효능감	매우 좋은 편[1]	3	4.76	0.420	9.966***	1>2,3,4,5 2>3,4,5
	좋은 편[2]	75	3.59	0.629		
	보통[3]	209	3.37	0.474		
	나쁜 편[4]	45	3.21	0.470		
	매우 나쁨[5]	6	3.11	0.717		
과제난이도 선호	매우 좋은 편[1]	3	4.07	0.833	8.424***	1>2,3,4,5 2>4
	좋은 편[2]	75	2.92	0.553		
	보통[3]	209	2.74	0.519		
	나쁜 편[4]	45	2.53	0.443		
	매우 나쁨[5]	6	2.77	0.852		
자기효능감 전체	매우 좋은 편[1]	3	4.37	0.546	17.001***	1>2,3,4,5

	좋은 편[2]	75	3.36	0.482	2>3,4,5
	보통[3]	209	3.11	0.377	
	나쁜 편[4]	45	2.97	0.326	
	매우 나쁨[5]	6	2.67	0.506	

***p<.001

과거 직업군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년기학습자들의 자기효능감은 과거 직업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사무직이 기술, 노동직, 사업, 서비스직, 기타 직업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무원 및 교직이 기술, 노동직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신감은 과거 직업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사무직이 기술, 노동직, 사업, 서비스직, 기타 직업보다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무원 및 교직이 기술, 노동직보다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 효능감도 과거 직업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사무직과 공무원 및 교직이 기타 직업보다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향성은 과거 직업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Ⅳ-13>과 같다.

<표 Ⅳ-13> 과거 직업군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N=338)

구분		N	M	SD	F	Scheffe
자신감	사무직[1]	37	3.68	0.677	7.558***	1>2,4,5,

	기술, 노동직[2]	56	3.03	0.592		
	공무원 및 교직[3]	52	3.47	0.526		
	사업[4]	60	3.14	0.444		6 3>2
	서비스직[5]	49	3.20	0.528		
	기타[6]	84	3.26	0.651		
자기조절 효능감	사무직[1]	37	3.67	0.630		
	기술, 노동직[2]	56	3.43	0.492		
	공무원 및 교직[3]	52	3.58	0.430	6.070***	1,3>6
	사업[4]	60	3.45	0.433		
	서비스직[5]	49	3.32	0.466		
	기타[6]	84	3.19	0.627		
과제난이도 선호	사무직[1]	37	2.94	0.469		
	기술, 노동직[2]	56	2.80	0.508		
	공무원 및 교직[3]	52	2.89	0.529	2.280*	N.S
	사업[4]	60	2.70	0.496		
	서비스직[5]	49	2.63	0.583		
	기타[6]	84	2.71	0.611		
자기효능감 전체	사무직[1]	37	3.43	0.488		
	기술, 노동직[2]	56	3.09	0.345		
	공무원 및 교직[3]	52	3.31	0.406	6.604***	1>2,4,5,6 3>2
	사업[4]	60	3.10	0.279		
	서비스직[5]	49	3.05	0.437		
	기타[6]	84	3.06	0.506		

*p<.05, ***p<.001

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노년기학습자들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동거형태, 최종학력, 건강상태, 경제상태, 과거 직업군, 종교)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년기학습자들의 생활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표본 t-검증 결과는 <표 Ⅳ-14>와 같다.

<표 Ⅳ-14>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N=388)

구분		N	M	SD	t
생활만족도	남자	155	3.39	0.477	.707
	여자	183	3.36	0.428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년기학습자들의 생활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60세~64세가 65세~70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Ⅳ-15>에 나타나 있다.

<표 Ⅳ-15>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N=338)

구분		N	M	SD	F	Scheffe
생활만족도	60세~64세[1]	74	3.51	0.481	3.186*	1>2
	65세~70세[2]	110	3.32	0.415		
	71세~74세[3]	80	3.36	0.455		
	75세 이상[4]	74	3.33	0.447		

*p<.05

동거형태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년기학습자들의 생활만족도는 동거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Ⅳ-16>과 같다.

<표 Ⅳ-16> 동거형태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N=338)

구분		N	M	SD	F	Scheffe
생활만족도	혼자[1]	68	3.34	0.534	1.576	-
	부부만[2]	187	3.37	0.451		
	결혼한 아들과[3]	14	3.25	0.376		
	결혼한 딸과[4]	17	3.29	0.367		
	미혼 자녀와[5]	48	3.47	0.359		
	기타[6]	4	3.80	0.122		

최종학력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년기학습자들의 생활만족도는 최종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대학교 졸업 이상이 무학,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Ⅳ-17>과 같다.

<표 Ⅳ-17> 최종학력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N=338)

구분		N	M	SD	F	Scheffe
생활만족도	무학[1]	17	3.11	0.356	9.664***	5>1,3,4
	초졸[2]	60	3.36	0.416		
	중졸[3]	42	3.12	0.373		
	고졸[4]	133	3.37	0.465		
	대졸 이상[5]	86	3.57	0.420		

***p<.001

경제상태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년기학습자들의 생활만족도는 경제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경제상태가 매우 좋은 편이 좋은 편, 보통, 나쁜 편, 매우 나쁜 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좋은 편이 보통, 나쁜 편, 매우 나쁜 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Ⅳ-18>과 같다.

<표 Ⅳ-18> 경제상태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N=338)

구분		N	M	SD	F	Scheffe
생활만족도	매우 좋은 편[1]	3	4.55	0.350	16.970***	1>2,3,4,5 2>3,4,5
	좋은 편[2]	75	3.59	0.454		
	보통[3]	209	3.34	0.396		
	나쁜 편[4]	45	3.14	0.433		
	매우 나쁨[5]	6	2.91	0.332		

***p<.001

과거 직업군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년기학습자들의 생활만족도는 과거 직업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Ⅳ-19>에 나타나 있다.

<표 Ⅳ-19> 과거 직업군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N=338)

구분		N	M	SD	F	Scheffe
생활만족도	사무직[1]	37	3.55	0.422	4.621***	N.S
	기술, 노동직[2]	56	3.30	0.385		
	공무원 및 교직[3]	52	3.57	0.362		
	사업[4]	60	3.30	0.444		
	서비스직[5]	49	3.29	0.478		
	기타[6]	84	3.32	0.494		

***p<.001

3. 직업교육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인 직업교육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그리고 생활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직업교육 참여동기는 자기효능감(r=.237, p<.001)과 정적 상관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만족도(r=.222, p<.001)와도 정적 상관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업교육 참여동기 하위요인 중 목표지향성이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

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신감은 직업교육 참여 동기 및 하위요인인 목표지향성, 활동지향성, 학습지향성과 모두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모든 하위변인들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표는 <표 Ⅳ-20>과 같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표 Ⅳ-20>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목표지향성	활동지향성	학습지향성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참여동기 전체	자기효능감 전체	생활만족도
목표지향성	1								
활동지향성	.139*	1							
학습지향성	.301***	.593***	1						
자신감	-.086	-.009	.005	1					
자기조절효능감	.140*	.224***	.300***	.320***	1				
과제난이도선호	.198***	.206***	.312***	.317***	.564***	1			
참여동기전체	.665***	.742***	.842***	-.041	.294***	.320***	1		
자기효능감전체	.102	.175**	.257***	.726***	.798***	.799***	.237***	1	
생활만족도	-.036	.278***	.276***	.518***	.504***	.442***	.222***	.633***	1

*p<.05, **p<.01, ***p<.001

4. 직업교육 참여동기가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 직업교육 참여동기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노년기학습자들의 직업교육 참여동기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6.8%(R^2=.068)로 나타났으며, 직업교육 참여동기 하위요인 중 학습지향성(β=.227, p=.001)은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학습자들의 학습지향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목표지향성과 활동지향성은 노년기학습자들의 자기효능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학습자들의의 직업교육 참여동기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Ⅳ-27>과 같다.

<표 Ⅳ-21> 직업교육 참여동기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상수)	2.661	.124		21.392	.000
목표지향성	.014	.028	.028	.510	.610
활동지향성	.022	.039	.037	.562	.575
학습지향성	.118	.035	.227	3.327	.001
R^2=.068 F=8.083***					

***p<.001

나. 직업교육 참여동기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년기학습자들의 직업교육 참여동기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11.0%(R2=.110)로 나타났으며, 직업교육 참여동기 하위요인 중 목표지향성(β=-.124, p=.023)은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학습자들의 목표지향성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활동지향성(β=.169, p=.009)과 학습지향성(β=.213, p=.002)은 노년기학습자들의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학습자들의 활동지향성과 학습지향성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노년기학습자들의의 직업교육 참여 동기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Ⅳ-28>과 같다.

<표 Ⅳ-22> 직업교육 참여동기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상수)	2.857	.125		22.769	.000
목표지향성	-.066	.029	-.124	-2.287	.023
활동지향성	.105	.040	.169	2.639	.009
학습지향성	.114	.036	.213	3.192	.002
R^2=.110 F=13.790***					

***p<.001

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교육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나타난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학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교육 참여동기에 있어 유의미한 요인은 연령, 동거형태, 최종학력, 경제상태, 과거 직업군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동거가족에 따라 참여동기에 차이가 있다는 최상오(2011)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기존 노년기 직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심재신, 2014 ; 양채원, 2011 ; 최경옥, 2009)에서는 노인 개인과 사회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직업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최미나, 2008)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로는 활동지향성이 가장 높은 동기였고, 그 다음이 학습지향성이었으며, 목표지향성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중년기 기혼여성의 직업교육 참여동기에서 취업이 이유인 경우가 62.6%로 나타나는 연구(김종숙, 2010)와도 비교된다 할 수 있다. 더욱이 경제상태가 좋은 편이 참여동기의 점수가 높았고, 학습지향성은 사후검증결과에서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경제상태가 매우 나쁘거나, 60-64세 남자노인에 있어서만 목표지향성이 가장 높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계층이 낮은 집단일수록 생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반면, 사회계층이 높은 집단일수록 성취나 자아실현의 욕구충족에

관련된 교육 참여 동기가 강하게 나타난다(이기환, 2003)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아직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난한 한국 남자 노인들의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참여동기 수준에 있어, 결혼한 아들과 사는 집단이 참여동기 하위 요인 모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도, 전통적으로 부모부양이 아들의 몫인 우리나라의 문화로 보았을 때, 아들과 사는 노인들이 생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결국은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이나 경제상태가 교육 참여동기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경제상태가 보통인 경우나 그냥 나쁜 경우에서는 활동지향성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성별이나 경제상태, 최종학력 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점수를 복합적으로 취합했을 경우, 유의미한 차이는 연령과 학력, 동거형태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은퇴자들의 은퇴교육 참여동기가 결혼상태나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므로, 개인별 특성에 따라 원하는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다는 손미혜(2013)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로써 노년기 직업교육 참여 동기는 개인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시대상황의 변화와 함께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인학습자가 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는 단일 유형화되기 어려우며 적어도 둘 이상의 상호 유기적 관련성을 지니는 복합적인 유형이 존재한다(나창훈, 2006)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 취업교육 참여동기는 노년기 주변상황, 노화에 따른 변화 등의 인과적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과 소득창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주변상황에 대한 재정립과 정보획득 등의 지원체계의 활용 등도 변수로 작용한다는 기영화, 전계향(2006)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노년기 학습자를 위한 교육은 노인의 특성과 전 생애 발달과정상을 고

려하여야 하며, 노인들이 소외감을 극복하고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영역과 노인의 욕구가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필수적이다(김지환, 2010).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면 노년기 학습자에 있어서 직업교육은 단순히 경제활동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일상과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 직업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구안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노년기 학습자들의 참여동기를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둘째, 노년기 학습자들에 있어 성별, 연령, 동거형태, 최종학력, 경제상태와 과거의 직업군이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중·고령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에 관한 선행연구(장희영, 2015)와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장희영은 성별, 연령별, 학력, 경제활동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조사하였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이, 연령에 있어서는 나이가 적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도출한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동거형태와 과거직업군에 따라서도 자기효능감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 노년기 학습자들을 획일적으로 집단화해서는 안 되며, 노년기 학습자들의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노년기 인구의 경제상태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윤형준(2010)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도시지역과 시골지역 노년기 인구를 대상으로 한 자기효능감을 비교한 결과, 도시지역이 시골지역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데, 이는 경제상황, 정보획득 등과 같은 복합적 상황에 의해 구체화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양정자(2018)는 자기효능감은 경제상태가 좋을 때 높아지며, 이는 노년기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하였다. 본 연구 또한 이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로써 볼 때, 경제 상태는 노년기 학습자를 포함한 노년기 인구 대상 전체에 아주 유의미한 삶의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사회가 노년기 인구의 경제상태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교육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신장시키는 방안도 마련해야하는 당위성이 성립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 있어서 노년기학습자의 생활만족도 차이는 연령, 최종학력, 경제상태에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노년기 인구에 있어 성별, 연령, 건강상태, 생활수준 등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박기권, 2004)를 지지하는 바이기는 하지만, 성별에 있어 다른 결과를 보인다. 성별은 전체사회의 기본 구성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노년기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 중 성별과 관련하여 생긴 차이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연구가 나타나지 않는다(김미란, 2013)는 선행연구가 본 연구 결과에서도 반영되었다. 하지만 노년기 전체가 아니라 노년기 직업교육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므로, 향후 지속적 관찰이 있어야 할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생활만족도는 절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한 사회의 발전수준과 구성원들의 상태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김상균, 1996)이고, 따라서 학자들마다 생활만족도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관심영역도 다르긴 하지만(이지연, 2003), 공통적으로 의견이 모이는 부분은 경제 상태이다. 최근들어서 경제가 생활만족도와 단순 상관관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행복, 만족, 복지감 등에 다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생활만족도에 대한 명쾌한 지표는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놓고 보자면, 노년기 학습자에 있어 경제상태는 생활만족도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한국 노인들에 있어서 경제상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재확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더불어 경제상태가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볼 때, 앞서 참여동기 조사 결과에서도 제시한 바, 노년기 인구를 위한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이 필요함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노년기 직업교육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간의 관련성 파악을 위한 상관분석 결과, 참여동기가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에 각각 정적 상관을 이루었고,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도 정적상관을 이루었다. 노년기 직업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거의 전무하므로 일반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정진하(2017)의 연구를 살펴본 결과, 삶의 의미, 교육만족도, 참여동기 간의 상관관계가 높았고, 교육만족도 및 참여동기가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참여동기가 높아지면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가 동반상승함을 보여주는 이 결과는 노년기에 있어서도 교육이 가지는 효과와 그에 따른 필요성을 절감하게 해 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인 자신감은 직업교육 참여동기 및 그 하위요인 모두와 상관이 없었고, 참여동기의 하위 요인인 목표지향성은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와 상관이 없었다. 이는 자신감이 높아진다고 해서 자기효능감이나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없고, 목표가 뚜렷하다거나 또는 목표하는 바가 절실하다고 해도 자기효능감이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최경민(2015)의 문화교육활동에 관한 연구에서도 활동지향성과 학습지향성만이 자기효능감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학습지향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들은 노년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이나 문화교육에서 목표지향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 지를 고민하게 한다고 보인다. 노년기학습자들의 학습욕구 중 목표지향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목표지향

성 동기가 자기효능감이나 생활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자기효능감 하위 요인 중 자신감은 참여동기와는 상관이 없지만 생활만족도와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고, 자기조절효능감은 참여동기 모두와 정적 상관을 가지는 한편, 생활만족도와도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더 높아진다는 권창호(2008)의 연구를 지지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노년기 직업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만족까지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기조절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구상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참여동기가 자기효능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직업교육 참여동기 하위요인 중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습지향성으로, 학습지향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도 높아지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 노년기를 포함한 성년 대상 학습자들이 교육에 참여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는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노년기 학습자들의 생활만족도, 자기효능감의 성취를 예측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변인으로서 노인교육 참여의 유의미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한(김진영, 2008) 연구도 있고, 성인학습자의 교육 참여동기와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을 촉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도출(안미영, 2012)한 연구도 있다. 본 연구에서의 학습지향성이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위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결과들에 반해 성인문해교육에 참여한 여성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박상현, 2014)에서는 자아존중감은 여성학습자의 일상생활능력에 영향을 미쳤으나, 참여동기(목표지향, 활동지향, 학습지향) 및 자아개념의 하위변수인 자기효능감은 일상생활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온 이유가 그 대상의 차이에 있거나, 아

니면 교육 내용의 차이에 있는지는 연구, 분석해 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에는 아직까지 노년기 직업교육에 있어 참여동기와 자기효능감을 변인으로 한 연구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기도 하므로 좀 더 많은 조사연구들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인간 행동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변화를 지속시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지이론의 관점(Schlicht, 2001)으로 노년기 학습자에게도 적용되는 변인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노인들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으며 심리적 안녕감을 느낄 수 있다(백인경, 2009; 김은휘, 2014). 노인이 됨에 따라 신체적 능력을 상실한다고 해서 반드시 심리·사회적인 기능의 수준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식이나 전문성의 획득을 통해 노인이 신체적 능력 상실을 보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 결과 신체적 노화와는 관계없이 자기효능감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 또한 가능하다(서은주, 2009; 신동민, 2012). 따라서 노년기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구안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향란(2012)은 학습참여동기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기결정성과 자기효능감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고 연구 발표하였다. 따라서 평생학습의 평가지표를 학습참여율과 성과에 대한 양적 측정에만 두는 것은 지양하고, 학습자들이 왜 학습에 참여하는지, 학습을 하면서 어떤 기분을 느끼고 정서를 경험하는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평생학습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길(윤정아, 2017)이며 이는 노년기 학습자들을 대상으로도 반드시 적용,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직업교육 참여동기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활동지향성과 학습지향성은 정적인 영향을 미쳐, 활동지향성과 학습지향성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목표지향성은 부적인 영향을

미쳐 목표지향성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결과는 매우 유심해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노년기 경제활동 관련한 기존연구들에서 경제활동이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요인(김신애, 2007)임이 밝혀진 바, 경제활동 자체는 생활만족도를 높이지만, 경제활동을 위한 직업교육을 목표로 할 때는 오히려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동기 연구 결과(강병직, 2018)에 의하면 건강유지 동기를 우선하는 참여자가 경제적 동기를 우선하는 참여자보다 만족도가 높았는데, 참여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경제적 동기를 가진 참여자의 만족도가 건강유지 동기를 가진 참여자의 만족도보다 낮은 것은 경제적 동기를 가진 참여자를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연령이 많을수록, 경제상태가 나쁠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는 가난한 한국 노인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연령과 무관하다는 연구(Tibits, 1960)도 있고, 나이 듦에 따라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 상실에 의해 감소되는 것이며, 사회활동 참여와 상호 대인관계에 관한 심리적 욕구는 더 증가한다는(함미경, 2015) 연구도 있으므로, 단순히 경제상태만으로 만족도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에 교육을 통해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직업교육을 진행할 때에도 단순히 취업이나 창업만을 위한 학습이 아니라, 노년기 특성을 반영하여,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해야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할 것이다.

2.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본 연구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고령사회에 적응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자, 노년기 직업교육을 본류에 두고, 노년기 직업교육 학습자의 참여동기와 자기효능감 및 생활만족도를 탐색,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를 바탕으로 노년기 직업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첫째, 연령에 따른 직업교육 참여동기 분석 결과, 60~64세의 직업교육 참여동기가 높았고, 그 중 목적지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통상 60세 이상을 노년의 시작으로 보고, 그 이후의 연령을 하나의 집단으로 규정하는 기존의 관행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교육에서의 학제와 마찬가지로, 노년기 교육 연구 및 노년기 직업교육 연구에 있어서도 연령층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교육적 접근과 지원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년기 직업교육 학습자들은 개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참여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경제상태가 좋지 않은 학습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노인학습자들은 취업이나 창업 등 목적지향성 동기보다도 학습이나 제반 활동에 더 동기화(motivation)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노년기 직업교육을 구상할 때는 노년기 학습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조리사 자격증이나 아이돌보미 교육을 실시할 때에도, 조리와 양육의 지식이나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향적이고 학습지향적인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 학습자들이 취업이나 창업

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깨달음의 기쁨이나 사회적 관계망의 확장 등과 같은 요구들을 충족할 수 있어야, 교육만족도와 함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년기 학습자들이 직업교육 참여동기 중 활동지향성과 학습지향성은 자기효능감 및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반면 목표지향성은 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경제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들에게는 교육만으로는 자기효능감이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노년기 직업교육은 교육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국가정부 및 지자체와 정책적으로 연계하여 구상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 또는 노인이라서 더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연구하고, 그것으로 일자리정책과 교육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한편, 산학협력의 개념이 노인들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넷째, 노년기 교육과 관련한 기존의 문헌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비교했을 때, 노인사회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별이나 연령별로 직업교육 참여동기에 변화가 있고, 동거형태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변화도 포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 변화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향후 이러한 변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어진다. 노년기 교육과 노년기 관련 정책을 실효성 있게 구안하려면 이러한 변화들을 유심히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노년기 직업교육 참여동기를 양적으로 조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노년기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를 분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 노인들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생산성 증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나. 제언

이상의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조사연구는 참여 경험이 있는 대상을 한정하여 그 안에서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노년기 직업교육의 필요성에 따른 교육활성화의 근거로서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에 노년기 직업교육 비참여자와의 비교조사가 진행된다면, 노년기 직업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그에 따라 교육의 수준과 성격도 구체화될 것이라 제안한다.

둘째, 노년기에도 자기효능감은 발달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더불어, 노년기 직업교육을 통해서도 참여동기에 따라 자기효능감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근거가 확보된 만큼, 노년기 직업교육에서 어떤 구성이나 요소들이 자기효능감을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의 연구가 필요하다. 막연히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고 끝낼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하니까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더라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구조화하여, 각 직업교육프로그램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병직 (2018). **참여동기가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사업 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은경 (2013). **노인의 감정조절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연구**. 목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강은나 (2017). 노인일자리사업 현황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251(0), 28-89.

강혜진, 이재완 (2018). 워라밸과 삶의 만족 -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3), 267-291

강훈, 구주형, 한상훈 (2016).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적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9), 340-350

고양훈 (2003). **직장여성들의 생활체육 참여도와 생활만족도 : 서울 강북구 직장여성들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영구, 허재완 (2015). **현대 지역경제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고은숙, 양의주, 조은숙, 하정 (2016).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취업진로연구,** 3(15), 63-89.

고종욱, 김명숙, (2013). 노인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6), 246-259.

곽영순 (2011). **예비노인의 경제활동 욕구에 대한 연구 - 마포구 고령자 인력활용을 중심으로 - .**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구자순 (1988). 각국의 노인문제 연구동향 ; 한국노인문제연구의 현황과 전망 - 사회노년학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 **한국노년학,** 8(1),

192-207.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권영길 (2008).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중돈 (2010).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권중돈, 손의성 (2010). 노인의 자기인식과 차별경험이 노인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49, 81-105.

권중돈, 조주연 (2000).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권창호 (2008). **노인일자리사업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기영화 (2004). 일본의 노인평생교육과 노인직업교육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노인평생교육의 새로운 이론적 모델 정립과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기초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7(1), 63-83

기영화 (2005).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노인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요인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성인교육학회**, 8(3), 89-109.

기영화 (2007). **노인교육의 실제.** 서울: 학지사.

기영화, 전계향 (2006). 고령자 취업교육 참여 동기와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 9(1), 129-154

김건희 (2016). **뉴실버세대의 자기효능감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 경제활동욕구와 노인일자리사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미, 류승아, 최인철 (2011). 삶의 의미가 노년기 행복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청년기와 노년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30(2), 503-523

김기량 (2007). **평생교육 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기태, 박봉길 (2002).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사회적 지지망. **한국노년학,** 20(1), 153-168.

김길자 (2004). **평생교육관점에서의 노인교육 프로그램 연구 : 노인교육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동배, 안인경, 이윤화 (2004). 노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1), 107-127,

김명자 (198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3), 45-54..

김미란 (2013). **노년기 평생교육 참여 동기 및 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민지 (2017). **컴퓨터 학습이 중고령자의 자기효능감, 행복지수, 삶의 질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성길 (2004). UNESCO와 OECD의 평생교육전략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평생여가교육의 가능성. **연세교육연구,** 17(1), 55-71

김아영 (1998). 동기이론의 교육현장 적용 연구와 과제 - 자기효능감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2(1), 105-128.

김아영 (2004).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교육방법연구**, 16(1), 1-38.

김아영 (2007). **학업적 자기효능감 : 이론과 현장 연구.** 서울; 학지사.

김애순 (2000). 은퇴와 노년기 일의 의미. **老人福祉政策研究**, 17, 163-189.

김연 (2001). **노인대학 참여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숙 (2003). 시니어에어로믹스 참가 노인의 여가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17(1), 33-46

김원배 (2010).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활동요인과 자원요인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선혜 (1999).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소향, 이신숙 (200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1), 309-327.

김수진 (2014). **한국판 일의 의미 척도(Working As Meaning Inventory; WAMI)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숙희 (2014).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특성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양평군을 중심으로-.**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신애 (2007). **여성노인 직업교육 프로그램 사례연구 -노인일자리 사업 M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목 (2005). **기독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숙 (2003). **시니어 에어로빅 운동이 고령자의 신체효능감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용숙 (2013). **노년기 교육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은휘 (2104). **노인을 위한 자기효능감 이론을 적용한 기억과 시각운동 통합 프로그램의 효과.**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의철, 박영신 (2001). **자기효능감과 인간 행동-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김재인 (1986). **후기 성인의 사회교육적 학습참여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탐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애 (2013). **노인의 생활체육활동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종숙 (2010). **기혼여성의 직업교육 참여가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 수강생을 중심으로 -.**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종식 (2014). **노인평생교육 참여 동기와 교육만족도 및 삶의 질 간의 관계 연구 -종교생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지환 (2010). **고령화 사회의 노인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관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진영 (2009). **평생교육 참여경험과 변화에 대한 연구.**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태주 (2002). 지속이론(Continuity)에 대한 고찰. **대구산업정보대학 논문집,** 16, 307-314.

김춘택, 박종우 (1999). 대구시 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19(3), 21-33.

김현지, 권정혜 (2012). 노인의 삶의 의미와 자살생각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31(2), 589-606.

김효순, 하춘광 (200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6(4), 393-413.

나창훈 (2006). **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동기 유형과 몰입 특징에 관한 연구 - 경북 영주 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나항진, 홍기형 (2002). 노인의 학습 요구분석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17(0), 51-83.

남경희, 장유미 (2013). 한 · 일 양국의 고령자일자리정책 비교연구. **일본근대학연구,** 39, 259-282.

남기민 (1998). **현대노인복지연구**. 청주: 청주대학교출판부.

남순현 (2016). **노인의 일과 여가 의미에 대한 Giorgi 현상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노경섭 (2014).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 SPSS & AMOS21**. 서울: 한빛아카데미.

노정옥 (2004). **노인의 일반 및 취업관련 특성과 삶의 만족도.**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류윤석 (2005). **평생학습사회에서의 노인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韓國敎育, 32(3) 377-399.

리해근 (2012). **노인의 일상생활 요인이 삶의 만족도 요인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모현규 (2015). **정보화교육이 노인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관계망에 미치는 영향.**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민진암 (201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 목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기권 (2004). **노인교육을 통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미경 (2001). **사회복지관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와 교육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민규 (2015).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에 대한 인식과 자기효능감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 M대학교 시니어창업교육 사례를 중심으**

로 -. 예원예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상현 (2014). **성인문해교육에 참여하는 여성학습자의 참여동기와 자아개념이 일상생활능력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석돈 (1998). 통합고용을 위한 직업재활의 과제. **職業再活硏究**, 8(12), 49-70.

박성연, 최혜경(1985).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부양 체계를 중심으로 한 인과 모형의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1),71-85.

박수미 (2015). **항공서비스관련학과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동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배경석 (2004).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성인학습자의 중도탈락 요인 분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인경 (2009). **노인의 자원봉사활동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병숙 (1989). **노후 적응에 관한 연구-생활만족도 및 가족의 교류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은주 (2009). **노인의 성공적 노화 구조모형**.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손미혜 (2013). 은퇴자 은퇴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와 저해요인. **노인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서울: 통계청

송인주 (2010). 남성노인의 노동 생애 경로와 일의 의미.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진영 (2011). **노인복지론.** 서울: 나눔의 집.

신동민 (2012). 노인의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 영성의 매개 및 조절효과 검증 -. **노인복지연구**, 57(0), 261-288.

신득렬 (2002). **위대한 대화.**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신미애 (2015). **평생학습참여자의 자기효능감과 참여동기가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경기북부지역 평생학습기관 학습자를 중심으로.** 대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이 (2013). **노인 정보화 교육 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심재신 (2014). **노인복지지원을 위한 노인평생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안미영 (2012). **성인학습자의 교육참여동기와 자기주도학습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영미 (2002). **노인의 삶의 의미와 자아존중감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석자 (2018).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양찬미, 염주희, 이윤경, 황남희 (2013). **평생교육 관점에서 바라본 노년교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채원 (2011).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관련 국가별 법·제도 비교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마이뉴스 (2013). **제20차 세계 노년학·노인의학대회 열려.** 라영수 시민기자

오지혜 (2015). **학습동아리 참여자의 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 독서활동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현숙 (2003). **노인의 특성적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와다히데키 (2001 번역: 이성림). **어른들을 위한 공부법.** 서울: 롱셀러

우채영 (2004). **노인들의 학습 참여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 - 영주지**

역노인교육 참여자 중심으로 -.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대로 (2018). **여성교원의 연수 참여동기와 직무역량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송자 (2005). **노인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건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광주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주희 (2013). **베이비 부머들의 생산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혜엽 (2008). **노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선아 (2011). 노년기의 발달과제와 심리적 특성, **뇌교육연구,** 특별호, 120-148.

윤순덕, 한경혜 (2004). 농촌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심리적 복지, **한국노년학**, 24(2), 57-77.

윤운성 (2000). 성인학습과 발달: 교육심리학적 시각. **교육심리연구**, 14(4), 31-50.

윤정아 (2017). **성인의 학습참여동기와 자기주도학습에서 학습정서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형준 (2010).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인식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경아 (2004). 성인학습자의 자기효능감과 학습전략간의 상관관계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0(4), 19-45.

이경아 (2016). 성인학습이론에 대한 탐구: Bateson 학습이론을 바탕으로. **성인계속 교육연구,** 7(3), 44-57.

이금룡 (2002). 전문직 퇴직단체를 통한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 재향경우회 회원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16(6), 219-243.

이기환 (2003). **평생학습자의 참여동기와 만족도.**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라금 (2012). **동화구연 프로그램이 노인의 자기효능감과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무근 (1999). **직업교육학 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이부일 (2010). **노인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참여 동기와 비참여 요인.**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이선아 (2008). **취업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만족 구성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성엽, 주충일 (2015). 기업에서 팀원들에 대한 사내코칭 프로그램 활용사례, **한국HRD연합학술대회,** 20(5).

이신철 (2010). **현대철학사전.** 서울: 도서출판b.

이우복 (1993).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윤복 (2012). **노인의 종교성과 삶의 질에 따른 연구 :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의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재영 (2010).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일의 의미가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부양기대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재일 (2001).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성 아동의 귀인양식 및 일반적 자아존중감 증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주일(2011). 노인의 일과 행복 - 생산적 노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5-73.

이지연 (2003). **노인복지시설 이용과 노인의 삶의 질 관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향란 (2012). **고령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활동적 노화 간의 구조적 관계.**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창희 (2004). **노인의 생활특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현선 (2003). **자원봉사활동의 평생교육적 의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현숙 (2008). **재가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상희 (1983). 대도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부산시를 대상으로. **사회조사연구,** 2(1).

장세철 (2004). **현대노인복지론**. 서울 : 弘益齋.

장인협, 최성재 (2010).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장형석 (2000). 일의 의미 척도의 구성 및 직무만족과의 관계. **심리과학연구,** 1(1), 81-117

장휘숙 (2012). 대학생과 노인의 노화불안과 특성불안 및 5요인 성격특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25(1), 1-18.

장희영 (2015). **중·고령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대성, 홍경숙 (2010). 생태체계요인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1세기사회복지연구,** 7(2), 265-297.

전수빈 (2014).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 대전광역시 노인의 동거형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승례 (2008). **고령실업자의 직업교육훈련 경험 과정에 대한 연구.** 부산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영수 (2007). **레크리이이션 댄스가 노년기의 자기효능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예지 (2017). **고령자의 취업형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진만 (2016).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문진 (2017). **고령장애인의 경제적 특성과 건강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영자 (2011). **울산광역시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및 생산활동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진하 (2016). **성인학습자의 참여 동기와 교육만족도가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학력인정 학교시설 재학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광희 (2010). **노인일자리사업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강릉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대연 (2017). **서울시 관악구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 요구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진가 (2016). **중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중국 하남성 주마덴시 노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차윤지 (2011).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 동기 유형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차이.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차정은 (1997).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천후섬 (2014). **노인 평생교육의 실태와 평생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갑현 (2016). **은퇴자의 여가문화활동과 자기효능감·생활만족도간의 관계분석**.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경민 (2015). **노인의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가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경숙 (2015). **일본과 한국의 고령자 고용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비교 연구 (일본의 '실버인재센터'와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최경옥 (2009). **고령실업자 직업교육훈련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최미나 (2008). **전북지역 노인복지관에서의 고령자 직업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연구.** 나사렛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성재 (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학술저널,** 233-258

최성재 (2004).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사회복지정책 방향, 사회과학논총,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1 135-149

최숙희 (2010).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 **한양고령사회논집,** 1(1), 1-40.

최순남 (2002). **현대노인복지론**. 서울: 법문사

최채은 (2012).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하애란 (2010). **한국 여성의 경력단절요인이 재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임섭 (1987).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경제활동과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한정란 (2005). **노인교육론.** 서울: 학지사.

한정란 (2015). **노인을 위한, 노인에 관한, 노인에 의한 교육.** 서울: 학지사

한준상 (2013). 미래 한국 평생교육정책의 비전. **한국평생교육**, 1(!), 151-180

한혜경 (2012). 의료와 미디어 산업의 노년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13(1), 58-85.

함미경 (2015). **평생교육 참여특성 및 만족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정무 (2000). 권리로서 노인교육. **IJACE 앤드라고지 투데이,** 3(4), 105-128

현영섭 (2005). 성인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관련학습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서울시 K구의 성인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1(3), 55-77.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Bandura, A. (1995). Self-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 서울: 학지사

Dewey, J.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Delors, J. et al. (1996). *Learning: The treasure within.* Paris: Unesco.

Faure, E. et al. (1972). *Learning to be.* Paris: Unesco.

부록

설문지

“직업교육 참여동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으시고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시나 “O”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직업 교육 참여 동기에 대한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목표지향형	1	나의 일상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①	②	③	④	⑤
	2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①	②	③	④	⑤
	3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①	②	③	④	⑤
	4	취업, 재취업, 창업을 위하여	①	②	③	④	⑤
	5	학력 향상, 정보 획득을 위하여	①	②	③	④	⑤
활동지향형	1	봉사활동을 위하여	①	②	③	④	⑤
	2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①	②	③	④	⑤
	3	삶의 활력을 얻으려고	①	②	③	④	⑤
	4	가정, 사회의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①	②	③	④	⑤
	5	보람된 여가 생활 활용	①	②	③	④	⑤
	6	경제적 활동을 위하여	①	②	③	④	⑤
학습지향형	1	지식추구	①	②	③	④	⑤
	2	자기만족	①	②	③	④	⑤
	3	배움을 통한 자아실현	①	②	③	④	⑤
	4	학문에 대한 열정	①	②	③	④	⑤

‘자기효능감’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으시고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 표시나 “O”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우울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일을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큰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위험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없을 것 같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일은 쉬운 것일수록 좋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해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만일 일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것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를 필요 이상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곤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어떤 문제에 대한 나의 판단은 대체로 정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항상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비추어 일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좀 실수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은 재미나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아주 쉬운 일보다는 차라리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어떤 일이 처음에 안 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생활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으시고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 표시나 “O”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난 평생을 돌아볼 때 후회할 일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지난 평생은 성공적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복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동갑내기들보다 어리석은 판단을 많이 내린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이루어 놓은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지난 평생은 힘들고 괴로워서 생각하기도 싫다.	①	②	③	④	⑤
7	요즘 나는 살맛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이를 먹어 가면서 보니 세상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9	요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때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현재의 생활방식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매일의 생활이 따분하고 지루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요즘 나는 매사가 짜증스럽고 귀찮다.	①	②	③	④	⑤
13	요즘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다.	①	②	③	④	⑤
14	요즘 화나는 일만 점점 더 많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오래오래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6	앞으로 살아가는 데 희망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앞으로 내 주위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8	앞으로 내가 할 만한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가치 있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더 이상 나이를 먹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다.	①	②	③	④	⑤